

BMGIM 심상경험의 심리학적 해석 : 융 학파의 관점에서 본 두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언 지**

국문초록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BMGIM)은 음악에 의해 떠오른 심상경험을 통해 자기인식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심리치료법이다. BMGIM에서는 심상을 다룰 때 내담자의 통찰에 중점을 두지만, 내담자들이 때로는 심상경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사와 내담자들은 BMGIM의 경험을 인과적-환원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BMGIM 심상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심상을 상징으로 보고, 목적의미를 중시하는 융 학파의 관점에서 심상경험을 해석해 본 것이다. 먼저 BMGIM의 정의와 절차를 다루어 보았고, 그 다음에 BMGIM의 구성 요소로서의 음악과 심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여성 내담자의 BMGIM 심상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치료사와 내담자 모두 심상경험을 보다 깊이 살펴봄으로써 심상의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내담자의 상처와 고통의 목적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고, 특히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BMGIM도 꿈이나 적극적 명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자발적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다. 둘째로, BMGIM에서도 인격의 발전, 치유와 전체성을 지향하는 객체정신의 자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 학파의 관점이 심상경험의 의미를 보다 깊고 풍

접수일 : 2020년 3월 19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4월 9일

*C.G. 융과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에 의한 스위스 심층심리연구소에 제출된 디플로마 논문 (2017).

**융 심층심리센터

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BMGIM도 꿈 분석이나 적극적 명상처럼 무의식을 다루는, 유용한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중심 단어 : BMGIM · 융 학파의 관점 · 상징적 의미 · 꿈 분석 · 적극적 명상.

들어가는 말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BMGIM)은 음악에 의해 떠오른 심상경험을 통해 자기인식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심리치료법이다. BMGIM에서는 심상을 다룰 때, 적극적 명상처럼 치료사의 지나친 해석은 피하고, 내담자의 통찰에 중점을 둔다. 특히 BMGIM 치료사는 “음악-심상 경험 중에는 해석과 분석을 하지 않는다.”¹⁾ 달리 말하면, BMGIM에서는 “심상과정의 해석이 합리적, 분석적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담자와 치료사가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연상적 관계뿐만 아니라 심상의 움직임과 전개를 지켜보는 것에서 이뤄져야한다.”²⁾

융은 무의식 그 자체가 상징을 통해 드러낸다고 보았고, 무의식의 산물인 “환상(fantasy)은 인과적으로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환상이 인과적으로 해석되면 생리적 상태의 증상, 선행 사건의 결과처럼 보여 질 수 있고, 목적론적으로 해석되면 환상은 즉각적으로 어떤 자료의 도움을 주는 명확한 목표로 특징 지워지고자 하거나 미래의 심리적 발전의 선상에서 추적되고자 하는 상징으로 보여질 수 있다.”³⁾고 보았다. 이처럼 융은 무의식의 내용을 다룰 때 인과적 관점과 합목적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⁴⁾ 그러나 “분

1) Clark MF(2002) : “Evolution of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BMGIM)”,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ed. By Bruscia KE & Grocke DE, Barcelona Publishers, Gilsum, p24.

2) Clark MF(1995) :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Hero’s Myth in GIM therapy”.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4 : p51.

3) Jung CG(1990) : “Definitions”,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720.

4) Sharp D(1991) : *Jung Lexicon : A Primer of Terms & Concepts*, Inner City Books, Toronto, p103.

석에서 환원적 설명이 고갈된 후에는 상징-형성(symbol-formation)이 건설적 접근법에 의해 강화된다.”⁵⁾ 달리 말하면, 융 학파의 관점은 심상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목적의미를 강조하는, 건설적-목적론적 관점을 취한다.

실제로 서구의 몇몇 BMGIM 치료사들은 융 학파의 관점에서 심상경험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도 했다. 그 예들로, 카렌 태스니는 한 여성 내담자의 10회의 세션에 나타난 심상을 통해 융 학파의 관점에서 근친상간의 치유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그림자 원형, 영웅 원형과 아니무스 원형을 탐색한다.⁶⁾ 마릴린 클락은 세션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한 여성 내담자의 영웅의 여정 신화의 원형적인 모티브와 자신이 개발한 음악프로그램을 사용한 BMGIM 세션에서 나타난, 다른 여성 내담자의 영웅의 여정 심상을 소개한다.⁷⁾ 앨리스 쇼트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민담의 고전적이고 원형적인 심상을 나타낸 한 여성 내담자의 1회 세션의 심상을 해석한다.⁸⁾ 수잔 웨슬리는 한 여성 내담자의 영웅의 여정에 대한 1회 세션의 심상을 융 학파의 관점에서 해석한다.⁹⁾

위의 예들처럼, 서구에서는 융 학파의 관점에서 BMGIM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BMGIM의 역사가 서구보다 훨씬 짧은 한국에서는 융 학파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한국의 내담자들이나 치료사들은 융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편이고, 심상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인과적-환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BMGIM 심상을 융 학파의 관점, 즉 목적의미를 중시하는, 건설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BMGIM의 정의와 절차, 두 번째로 BMGIM의 구성요소로서 음악과 심상, 마지막으로 융 학파의 관점에서 두 여성 내담자의 BMGIM 심상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5) Sharp D(1991) : 앞의 책, p104.

6) Tasney K(1993) : “Beginning the Healing of Incest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 A Jungian Perspective”,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 pp35-47.

7) Clark MF(1995) : 앞의 책, pp49-65.

8) Short AE(1996-1997) : “Jungian archetypes in GIM therapy : Approaching the client’s Fairytale”,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5 : pp37-49.

9) Wesley SB(1998-1999) : “Music, Jung, and Making Meaning”,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6 : pp3-14.

BMGIM에 관하여

1. 정 의

BMGIM은 음악에 의해 떠오른 심상경험을 통해 자기인식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심리치료법이다. BMGIM은 바이올린 주자이고 음악치료사였던 헬렌 바니Helen Bonny에 의해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¹⁰⁾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AMI)는 BMGI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니의 GIM 방법은 음악이 중심이 되는 변형적 치료로, 특수하게 프로그램 된 고전 음악을 사용하여 내적 경험의 역동적인 전개를 자극하고 지지해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전체성wholeness에 봉사하는 것이다. GIM 치료사 또는 가이드는 세션 동안 감상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여 떠오르는 정서, 이미지, 신체감각, 기억과 생각을 격려하고 집중하게 한다.”¹¹⁾ 달리 말하면, BMGIM은 신체적·심리적·영적 전체성을 목적으로 하는 융 심리학의 틀과 관련이 있고,¹²⁾ 상상적 활동인 환상fantasy을 경험하고, 그 환상적 활동에 형태를 부여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내담자가 심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명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BMGIM은 심층작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통합과 전체성에 이르게 하는’ 원형적인 자료에 접근하게 한다.¹³⁾

이 논문에서는 GIM이라는 용어 대신에 BMGIM을 사용한다. 헬렌 바니가 그녀의 기법을 개발한 이후, GIM 단체에서는 다양한 변형들이 만들어져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GIM 단체에서 이런 기법들 간에 용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⁴⁾ BMGIM 트레이너인 케네스 브루샤는 “GIM은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의 음악-심상화(music-imagery)의 모든 형태로 보며… BMGIM은 바니의 개인형식이며, 그룹 GIM이나 음악과 심상(Music Imagery,

10) Short AE(1996-1997) : 앞의 책, p38.

11)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AMI) (1990), p4. 재인용 : Clark MF(2002) : 앞의 책, p22.

12) Helen Bonny(1998) : *Basic Premises of GIM*, Unpublished manuscript, Salina, KS: Bonny Foundation. 재인용 : Clark MF(2002) : 앞의 책, p23.

13) Helen Bonny(1998) : *Basic Premises of GIM*. 재인용 : Clark MF(2002) : 앞의 책, p22.

14) Bruscia KE(2002) : “The Boundaries of Guided Imagery and Music and the Bonny Method”, *Guide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p37-38.

MI)은 바니의 그룹형식으로 본다.”¹⁵⁾ 나아가 그는 “BMGIM은 1) 개인 형식 2) 의식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예 : 치유, 심리치료, 자기계발, 영적인 작업 등에서) 3) 자발적 심상imaging과 연관되고 4)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5) 미리 만들어진(녹음된) 고전음악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6) 가이드¹⁶⁾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7) 가이드는 비지시적, 비분석적, 음악에 근거한 중재를 사용하고 8) 내담자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안에서 9) 모든 세션은 다음의 구성요소, 즉 예비대화, 이완/인덕션, 안내받는 음악-심상화 경험, 복귀, 그리고 종결 토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⁷⁾고 말한다.

2. 절 차

BMGIM은 1) 도입부(prelude), 2) 인덕션(induction), 3) 음악-심상화 경험(music-imaging experience), 4) 종결부(postlude)¹⁸⁾의 4단계로 구성된다. 인덕션과 음악-심상화 경험은 내담자가 안대를 착용하고 매트에 누워서 진행되며 “BMGIM 세션은 대략 두 시간 정도 걸린다.”¹⁹⁾

1) 도입부 : 인텐션(Intention, 주제) 선정과 음악프로그램 선곡

도입부에서 치료사는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관련정보를 모으고 내담자가 다루기 원하는 이슈를 확인한다. 치료사는 내담자의 동의에 의해 인텐션(주제)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음악프로그램을 선택한다. 헬렌 바니는 16년 동안 18개의 음악프로그램을 만들었고,²⁰⁾ 추가로 65개의 음악프로그램이 BMGIM 임상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²¹⁾ 각각의 음악프로그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서양의 고전명곡과 현대 곡 중에서 몇 개의 곡(2~12개)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제목을 가지며, 음악프로그램의 길이는 50분 내외다. “음악 선곡을 일반화

15) Bruscia KE(2002) : 앞의 책, p39.

16) BMGIM에서 치료사는 guide나 facilitator로, 내담자는 traveler로 불린다.

17) Bruscia KE(2002) : 앞의 책, p46.

18) Ward KM(2002) : “A Jungian orientation to the Bonny Method”,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p220-223.

19) Ventre M(2002) : “The Individual Form of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BMGIM)”,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29.

20) Grocke DE(2002) : “The Bonny Music programs”,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p99-133.

21) Bruscia KE, Grocke DE, ed.(2002) : “Appendix C”,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pp563-591.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선곡은 경험(감각), 내담자와 음악과 작곡가에 대한 지식과 연구(사고), 고려될 수 있는 감정과 직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²²⁾

2) 인덕션 : 이완과 집중

인덕션은 내담자가 이완하고 내적 상태에 집중해서 의식의 변형된 상태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완은 심상경험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이완하고 내적으로 집중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잠시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²³⁾ 인덕션의 유형은 호흡에 집중하기, 점진적 이완과 이완이 되는 심상이나 색채 심상 등이 있다.

3) 음악-심상화 경험

이 단계에서 내담자가 음악에 의해 떠올려진 심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단계가 BMGIM의 네 단계 중 가장 핵심적이다. 음악-심상-치료사의 상호작용은 내담자의 깊은 경험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심상경험이 시작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심상경험을 치료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치료사는 그 내용을 받아 적고, 적절한 음악적·언어적·신체적 중재를 시행한다. 이때 “세션 동안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기저에 있는 상징적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²⁴⁾

4) 종결부 : 만다라 그리기와 토의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심상경험을 만다라로 표현하고, 치료사와 함께 심상경험과 만다라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통합을 지향한다.

3. BMGIM의 구성요소로서의 음악

BMGIM이 다른 심상 기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음악이다. 음악은 파동과 진동의 에너지로 몸과 마음(mind)과 정신(spirit)에 다양한 강도로 작용하고, 선율·리듬·화성·음색을 사용해서 관념과 감정과 소통한다. 음악은 확실성과 모호함이나 역설로 가득 찬 삶 그 자체를 반영한다. 음악은 강력한 정

22) Ward KM(2002) : 앞의 책, p221.

23) Bush CA(1995) : *Healing Imagery & Music : Pathways to the Inner Self*, Rudra Press, Portland, p188.

24) Ward KM(2002) : 앞의 책, p222.

서반응을 일으키고, 질서와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원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음악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율성과 신성력을 갖고 있고, 질서나 조화와 치유를 가져오며 깊은 정신신체적(psychosomatic) 해방감을 촉진시킨다.

1956년에 용은 음악치료사인 마가렛 킬리(Margaret Tilly)와의 만남에서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들은 후, 음악이 심오한 원형적인 자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음악이 모든 분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²⁵⁾ 용이 그녀의 음악을 듣는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음악이 원형적인 자료를 다룬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이 BMGIM 치료사인 나에게서 매우 인상적이다.

헬렌 바니는, “음악은 협동치료사(co-therapist), 이미지를 만드는 자, 경험을 통합시키는 자, 제반응(abreaction)을 위한 지지적인 구조, 보다 높은 의식 영역으로 가게 하는 출입구, 그리고 내적 대화의 촉진자다.”²⁶⁾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이완된 상태에서 듣는, 특별하게 선곡된 음악은 정서를 만들어 내고 이런 정서의 각성은 관련된 심상으로 이끈다. 또한 음악의 모호성은 음악을 듣는 각 개인에게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고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서, 문제의 긴장을 자극하고 창의적 표현과 해결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며, 음악이 일종의 투사막이 되어 심리적 투사를 위한 표현수단이 된다.²⁷⁾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보다도 가장 신속하게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의 신체 유기체는 심장박동이나 혈압처럼 그 자체로 생물학적인 교향곡이다.”²⁸⁾ 예를 들어 우리는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된다. “본능적으로, 소리의 내부의 생물학적 환경은 외부 환경의 소리에 동조한다. 우리가 음악 작품을 들을 때, 음악의 리듬, 박, 맥박이 신체의 리듬, 박과 맥박에 영향을 주고 동조한다.”²⁹⁾ 신체는 억제되고 표현되지 않은

25) Jung CG, McGuire W, Hull RFC edited(1977) : *C. G. Jung Speaking : Interviews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75.

26) Helen Bonny(1998) : *Basic Premises of GIM*, 재인용 : Clark MF(2002) : 앞의 책, p23.

27) Goldberg FS(1992) : “Images of Emotion : The Role of Emotion in Guided Imagery and Music”, *J.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 1 : pp5-17. 재인용 : Bush CA(1995) : 앞의 책, p24.

28) Bush CA(1995) : 앞의 책, p71.

29) Bush CA(1995) : 앞의 책, p71.

정서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정서를 통해 음악을 들으면, 음악은 신체적인 방식으로 몸에 영향을 준다.”³⁰⁾ 그래서 BMGIM 치료사는 내담자의 신체에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체적 중재를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음악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미지나 관련된 기억의 색도를 느슨하게 해서 회상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³¹⁾ 그래서 음악은 외상을 다루는 제반응³²⁾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BMGIM 음악은 이완이나 여흥을 위해 선택되기 보다는 오히려 폭넓은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제안하기 위해 선택된다.³³⁾ “음악은 심상경험을 위한 의미 있는 역동적 구조를 제공하고 연속적인 파동을 담고 있어서, 주체가 힘든 장면과 난곡을 거쳐 갈 수 있게 하고 심리적인 방어를 극복하도록 돕는다.”³⁴⁾ 즉 BMGIM에서 “음악은 정신에서 움직임 시작하게 하고 의식의 영역을 드러내고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과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³⁵⁾

BMGIM에서는 특별하게 프로그램 된 서양고전음악이 사용된다. 1979년 시카고 융 연구소의 강의에서 심리학자인 케네스 필립스(Kenneth Phillips)는 상상력과 작업하는데 있어서 음악의 힘의 특별한 지각과 관련된 의견을 나타내면서, 명곡은 개인적이거나 의식적인 마음(mind)에서가 아니라 원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³⁶⁾ 그렇기 때문에 BMGIM에서 사용하는 고전음악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고, 삶에 대한 거대한 질문과 같은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는 원형적인 특질을 갖고 있어서 인간의 정신의 깊이를 일깨워준다. 특히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작곡된 고전음악은 다양한 심상경험에 최고로 적합한데,³⁷⁾ 그 이유는 그런 음악이 긴장/해결, 역설과 우리 자신의 본성과 같은 많은 것들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악을 반복하여

30) Bush CA(1995) : 앞의 책, p24.

31) Bush CA(1995) : 앞의 책, p77.

32) 참고. “제반응의 치료적 가치”, 융 기본 저작집 1권.

33) Bush CA(1995) : 앞의 책, p79.

34) Grof S(1985) : *Beyond the Brain ; Birth, Death and Transcendence in Psychotherapy*, State University Press, Albany, p111. 재인용 : Bush CA(1995) : 앞의 책, p22.

35) Bush CA, et al(1999), *The Fundamentals of the Bonny Method*, Unpublished manuscript. 재인용 : Clark MF(2002) : 앞의 책, p23.

36) Wesley SB(1998-1999) : 앞의 책, p5.

37) Bush CA(1995) : 앞의 책, p78.

든게 되면, 음악은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감상자를 신선한 영감으로 계속 움직이게 한다.”³⁸⁾

4. BMGIM 구성요소로서의 심상

BMGIM 트레이너인 캐롤 부시에 의하면, “심상은 상상의 언어이고, 몸과 마음과 정신 사이의 다리가 될 뿐 아니라 내면의 자기와 생생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³⁹⁾ BMGIM에서 다루는 심상의 범주는 다양한데, 심상의 유형으로는 직관형, 감각형, 시각형의 세 가지로 나뉘고,⁴⁰⁾ 심상의 단계는 그 경험의 깊이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내담자가 관찰자의 역할을 주로 하는 감각적 단계, 두 번째는 회고적/분석적 단계로 내담자가 심상과 깊이 관련되고 극적인 에피소드가 나타나서 은유적인 심리적 패턴을 반영하는 심리적 단계, 세 번째는 죽음과 재탄생과 같은 보편적 주제와 상징이 나타나는 상징적/신화적 단계,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의 발견 같은 매우 심오한 영적 문제를 다루는 통전적/영적 단계가 있다.⁴¹⁾ 실제 BMGIM임상에서는 이런 단계들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내담자의 의식수준이나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융은 이미지가 꿈, 환상, 상징과 같은 무의식의 언어라고 보았고,⁴²⁾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이뤄지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지의 연속인데, 우연한 병렬이나 연속물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구조다.”⁴³⁾라고 말했다. 분석심리학에서 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지와 정서와의 깊은 관련 때문인 것 같다. 콤플렉스는 정서가 실린 이미지며,⁴⁴⁾ 콤플렉스의 인식은 궁극적으로 정서의 인식과 관계된다. 융은 정서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 즉 정서 뒤

38) Bush CA(1995) : 앞의 책, p79.

39) Bush CA(1995) : 앞의 책, p48.

40) Bush CA(1995) : 앞의 책, pp50-52.

41) Bush CA(1995) : 앞의 책, pp56-67.

4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5) : 융 기본 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pp39-41.

43) Jung CG(1981) : “Spirit and Life”,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618.

4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 융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p232.

에 숨겨져 있던 이미지를 발견함으로써 내적 안정을 갖게 되고, 정서 뒤에 숨은 이미지를 의식화하는 것이 치료적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⁴⁵⁾ 이처럼 우리는 정서를 관찰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정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의 형상화는 정서를 인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⁴⁶⁾

응은 꿈이나 환상 같은 무의식의 내용을 동화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명상을 제안한다.⁴⁷⁾ 적극적 명상에서는 환상에 대한 의식의 적극적 참여가 강조되는데, 의식이 환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환상을 계속 의식화하게 되면 의식이 확대되고, 무의식의 주도적 영향력이 감소되며, 인격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⁴⁸⁾ BMGIM도 환상의 내용을 동화하고자 하는 적극적 명상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심상경험에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 학파의 관점에서 본 BMGIM 심상경험의 심리학적 해석

1. S의 사례

S는 음악치료 인턴과정 중에 있던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다. 그녀는 예전에 다른 BMGIM 치료사와 BMGIM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BMGIM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치료사로서 잘 성장해갈 수 있을지 불안해했고, 자신감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에는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해주지 않았고, 지금은 자신에게 의존적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세션은 매주 1회씩 총 6회 동안 BMGIM의 절차에 따라 총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30분으로 진행되었다.

45) Jung CG, Jaffé A, 이부영 옮김(2012)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파주, p225.

46)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응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358.

47)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338.

48) Jung CG, 한국응연구원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응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35.

1) 1회 세션 : 튼튼한 나

S는 ‘흔들거리는 나’의 인텐션과 Abandonment to bonding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신체적·정서적·통찰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세션이 끝난 후, 종결부에서 S는 주요 이미지로 여섯 번째 곡(슈만의 Dreaming)에서 경험한 3~4살 아이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끼가 낀 장면에서 방치된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연상했다. 이 포기하는 태도가 음악치료사로서의 꿈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과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자신을 깨려고 할 때 아플까봐 염려하는 장면을, 예전에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해하는 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S는 세션 후 자신이 좀 더 견고해진 느낌이 든다고 했다.

(1) 바닷물에 가라앉는 것

심상은 S가 바닷물에 가라앉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그녀는 물위로 다시 올라오지만 허우적거리다 다시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바다’의 주제가 나온다. 대개 바다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을 상징한다.⁴⁹⁾ 그러므로 내담자가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의식으로서의 하강을 뜻한다.⁵⁰⁾ 이 상태는 밤의 항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밤의 항해는 “신화에서 원형적인 주제로, 심리학적으로 우울과 신경증의 특징인 에너지의 상실과 연관된다.”⁵¹⁾

융에 의하면, “밤의 항해는 일종의 ‘저승으로의 하강’, 하데스로의 하강, 그리고 귀령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 저편, 즉 의식 저편으로의 항해, 따라서 무의식으로서의 침잠이다.”⁵²⁾ 무의식으로서의 하강은 한편으로는 무의식에 의해 압도되는 것 같은 매우 두려운 경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해(*solutio*), 즉 문제의 해결과 관계가 있다.⁵³⁾ 사실상 밤의 항해는 삶의 회복, 부활과 죽음을 넘

49)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융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89.

50) Jung CG(1985) :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455.

51) Sharp D(1991) : 앞의 책, p69.

5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p264-265.

53) Jung CG(1985) :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ara.454.

어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⁵⁴⁾ 그러므로 S가 바다 속에 가라앉게 되는 것은 목적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를 위해서는 어두운 무의식 세계로의 하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S는 점점 더 가라앉게 되자, 수면위로 올라오려는 노력을 포기한 듯 보인다. 한편으로, 이런 무기력한 S의 태도는 의식수준의 저하 상태, 자아의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의식[또는 자기(Self)]의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용이 말했듯이, “자기의 경험은 자아에게 있어서는 항상 패배다.”⁵⁵⁾ S가 자아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몸이 굳는 것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S는 이제 자신의 몸이 굳어 버릴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생명체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 즉 ‘석화’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석화는 심리학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비되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⁵⁶⁾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를 직접 보는 사람이 돌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심한 갈등이나 위기상황에서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인해 마비되고 굳어버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몸이 굳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연금술의 응고(*coagulatio*)의 세 가지 매개체 중 하나인 납의 특성과 관계될 수 있다. “납은 무겁고, 무디고, 부담스럽다. 그것은 의기소침, 우울 그리고 짜증나는 제한이 따라다니는 토성과 관계가 있다.”⁵⁷⁾ 따라서 몸이 굳는 것은 그녀가 마치 납처럼 무겁고 힘든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우울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면에서, S는 굳어버린 자신을 일으켜 세워 바다에 내려찍거나 망치를 사용해서 자신을 깨

54) Jung CG(1993) : “Religious ideas in Alchemy”,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436.

55) Jung CG(1989) : “The Conjunction”,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778.

56) von Franz ML(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Publications, Boston, p68.

57)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p102.

뜨리려고 하지만 자신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실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잠시 후 S는 저절로 투명한 막 같은 껍질에 싸인 듯 물렁하게 변한다.

(3) 아이의 상징

S는 투명한 껍질에 싸여 물에 녹아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번 세션의 인텐션(흔들거리는 나)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상처받기 쉽고 안전하지 않은 아이는 S의 유약한 자아의 상태를 나타낸다. 융에 따르면, “어린이 주제의 본질적 측면은 그 미래적 특성이다. 어린이는 잠재력을 지닌 미래이다… 어린이 상은 대극을 융합하는 상징, 하나의 중재자, 구체자 즉 전체성의 실현자다.”⁵⁸⁾ 이 아이는 S의 잠재력을 지닌 미래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자기의 적합한 상징으로, 내적인 미래의 전체성(totality)을 재생할 수 있고, 동시에 고유한 개인의 발달되지 않은 면을 나타내기도 한다.”⁵⁹⁾ 에딩저는 아이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아이는 어른의 원질료(*prima materia*)라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같이 되려면 다시 천진난만함, 즉 분화되지 않은 원질료 상태로 돌아가야 하며 이것은 변환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⁶⁰⁾ 따라서 심상에서의 취약한 아이는 S의 인격 변환 및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원질료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 S의 유약한 자아일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

(4) 아이가 물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S는 심상에서 아이가 물에 녹아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S가 아이와 같이 유약한 자신의 존재가 상실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물에 녹는 것은 연금술의 용해(*solutio*) 과정과 관계된다. 에딩저는 용해작업의 일곱 가지 측면을, ① 자궁 또는 최초 상태로의 회귀 ② 분해, 분산, 분할 ③ 큰 것이 작은 것을 포용함 ④ 재탄생, 다시 젊어짐,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에 잠김 ⑤ 시련과 정화 ⑥ 문제의 해결 ⑦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⁶¹⁾

5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253.

59)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234.

60)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14.

61)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93.

용은 꿈 작업을 통해 좁고 경직된 태도가 풀어지는 것을 영원한 물(*aqua permanens*)에 의한 용해로 이해한다.⁶²⁾ 또한 에딩저에 의하면, “고착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개인의 인격은 경직되어 정체되어 있는데 정신적 변환의 관정을 거쳐 그것이 분화되지 않은 물질 고유의 초기 상태로 환원되거나 돌아가야 한다.”⁶³⁾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이 약한 여성인 S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한계를 짓는,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심상에서 S의 몸이 굳어진 것도 어찌면 S의 이런 경직된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S가 정신적 변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실적인 인격이 새로워 지려면 현재의 인격이 용해되어 초기 물질로 돌아가서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 형태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⁶⁴⁾ 다시 말해, S의 자아는 자신의 존재가 해체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녀의 정신은 보다 깊은 목적의미, 즉 인격의 변환을 위해 용해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기도와 사랑의 심리학적 의미

다음 장면에서 S는 투명한 막에 쌓여있는 아이가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도록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통해 물렁하던 아이가 튼튼한 아이로 변한다. 용에 따르면, “기도는 신격을 향한 소망, 신상(神像)을 향한 리비도의 집중이다.”⁶⁵⁾ 그는 기도를 ‘거룩한 것, 신성을 향한 위를 향한 분투하는 인간의 의지’로 정의한다.⁶⁶⁾ 또 “기도란 우리의 무능을 표현하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롬 8:22)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미신적인 신념을 보상하는 태도를 깨우쳐 준다.”⁶⁷⁾고 한다. S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녀가 자아의 의지와 능력을 포기하고, 더 큰 존재, 즉 자기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자 투명한 껍질에 쌓여있던

62) Jung CG(1989) : “The Personification of the Opposites,” CW 14, para.306.

63)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13.

64)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14.

6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18.

66) Jung CG(1990) : “The Type Problem in Poetry”, CW 6, para.336.

67) Jung CG(1970) : “Flying Saucers: A Modern Myth of Things Seen in the Skies”, CW 10, *Civilization and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679.

아이가 갓난아기로 변하여 포대기에 쌓인 채 S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된다. 투명한 껍질에서 나와 갓난아기로 변한 것은 마치 출생의 과정을 연상시킨다. 물렁했던 아이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막에서 나오자, 뼈가 있는 단단한 아이로 변한다. 이것은 S의 자아정체성이 보다 구체화되고 견고화된 것을 뜻한다.

투명한 껍질에 있던 아이가 S가 안을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아기로 변화된 것은 바로 S의 사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에 의하면, ‘비록 내가 사람과 천사의 혀로 말하되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이란 바울의 말은 모든 인식가운데서 최초의 인식이며 신격 그 자체의 정수다.⁶⁸⁾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를 ‘우주의 생성원(kosmogonos), 즉 창조자이며 의식성의 부모’라고 보았다.⁶⁹⁾ 또한 에딩저는 “사물들을 함께 달라붙게 하는 사랑은 접착제이고, 연금술에서의 ‘풀,’ ‘고무’ 그리고 ‘송진’은 변환물질과 동의어다. 이런 물질은 삶의 힘(vis animans)으로서 다른 논평자에 의해서 ‘세계의 풀(glutinum mundi)’에 비교되었는데, 이것은 마음과 몸 간의 매개물이고 이 둘의 연합이다.”⁷⁰⁾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사랑은 사물의 특질을 변환시킨다. 사랑은 활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이런 점에서 S의 사랑의 태도는 그녀 자신의 약한 면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후의 장면에서 S는 아기를 안고 사랑한다고,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주고 안아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기가 편안해 보이고, S가 안고 있던 아기가 그녀의 몸으로 들어오고, 그녀가 다시 기도하자 그녀 자신이 3~4세의 아이로 변한다. 3~4세의 아이는 3~4년 전에 S에게 새롭게 형성된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그녀가 음악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S가 음악치료사로서 성장해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6)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

3~4세의 아이가 들판에서 뛰어놀 때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소나무가 생

68) Jung CG, Jaffé A, 이부영 옮김(2012) : 앞의 책, p438.

69) Jung CG, Jaffé A, 이부영 옮김(2012) : 앞의 책, p438.

70) Edinger EF(2000) : *Anatomy of the Psyche : Dictionary of Jungian Psychology*, compiled By Ladd T, p19.

겨난다. 처음에는 나무의 줄기가 약했지만 점점 튼튼히 자라고, 아이도 함께 자라 아이가 나무에 기댈 수 있게 된다. 원형상으로서의 나무의 의미는 성장, 생명, 신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형태를 펼치는 것, 발전,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의 성장, 모성적 측면(보호, 그늘, 피난처, 자양분을 주는 열매, 생명의 근원, 견고함, 영속성, 단단하게 뿌리박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는 것), 노년, 인격과 죽음과 재탄생이다.⁷¹⁾ 또한 “나무는 인간의 삶의 과정, 의식을 향한 내적성장, 죽음을 통과하는 것, 재탄생과 부활과 신의 지혜와 그노시스를 얻는 것을 나타낸다… 나무를 작업(opus)과 도덕적이고 물리적인 변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삶의 과정을 나타낸다.”⁷²⁾

S는 나무와 그녀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무가 점점 자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나무는 그녀의 인격이나 성장과 발전을 향한 그녀의 내적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이 나무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S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나 피난처로 기능하기 때문에 모성상징으로 볼 수 있다. 모성상징으로서의 나무는 생명나무로 표현되는데, 이 생명나무는 열매를 달고 있는 족보나무로, 일종의 종족의 어머니로 여겨진다. 수많은 신화는, 인간의 기원이 나무에서 비롯되고 영웅들이 어떻게 모성의 나무 속에 밀폐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⁷³⁾

S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심상에서의 나무를 모성상징으로 본다면, 주관단계에서는 S의 모성적 기초가 보다 견고해짐을 뜻할 수 있고, 객관단계에서는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해볼 수도 있다. 특히 소나무는 “상록수이고 썩지 않는 송진으로 인해 불멸의 상징이며, 바람과 날씨를 견디는 나무로서, 생명력 있는 에너지와 삶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지배하는 인격을 상징한다.”⁷⁴⁾ 반면에 한국에서는 소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보고, 마을이나 개인을 수호하는 신목神木으로 여겼으며, 제의를 행할 때 제의 공간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소나무는 자연의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곳곳한

71) Jung CG(1983) :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Alchemical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350.

72) von Franz ML(1999) : *Muhammad Ibn Umail's Hall Ar-Rumuz : Historical Introduction and Psychological Comment*, Fotorotar AG, Switzerland, p127.

7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91.

74) Matthews B(1993) : *The Herder Symbol Dictionary*,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p150.

절개와 의지, 장생을 상징한다.⁷⁵⁾

다시 말해 자기 확신이나 자아정체성이 약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는 ‘흔들 거리는 나’라는 인텐션을 가지고 심상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녀의 정신은 마지막 장면에서 사계절 푸른 견고한 소나무를 등장시킴으로서, 그녀에게 보다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2회 세션 : 고마움

S는 1회 세션에 등장한 3~4세의 아이가 좀 더 든든해지기를 원했고,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나’의 인텐션과 Reflections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S는 주요 이미지로 다섯 번째 곡(Secret garden #4)에서 젊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언급했다. 위의 인텐션과 관련하여, S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 세션을 통해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한 여성으로서 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옛 친구들이나 어머니와의 화해가 자신을 보다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통찰했다.

(1) 한쪽 눈이 아픈 나

S는 3~4세 때 사진속의 장면, 한쪽 눈이 아팠던 자신의 모습을 재 경험한다. 그리고 사진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이지만,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녀는 안쓰러운 감정을 느낀다. 융은 꿈이나 환상(vision)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이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상태 사이에 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결부되고, 페르소나로 인해 자신의 근원적 성격에서 현재의 자신을 분리시킨 결과이며, 이런 사람은 어린이답지 않은 인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뿌리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다.⁷⁶⁾ 융의 말처럼, S는 한쪽 눈이 아팠던,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와 분리되어 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어린이 주제는 주로 노이로제 환자 치료에서 무의식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숙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고 의미 있게 나타난다.”⁷⁷⁾ S가 한쪽 눈이 아픈 자신의 모습도 괜찮다고 사랑의 태

75)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4) :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p431-432.

7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p249-250.

7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247.

도로 수용했을 때, 아이가 평안해 보이고 더 이상 아파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상처 입은 아이의 고통과 다시 연결되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⁷⁸⁾ S는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한 것이다. 이것은 결함이 있는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유는 전체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분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다른 측면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가능하다. 한쪽 눈이 아픈 것은 그녀에게는 육체의 가시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그늘진 측면이다. 그녀가 그런 측면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측면 없이는 전체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림자 없이는 빛도 없고, 결함이 없이는 정신적 전체성도 없다.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필요로 한다. 결함의 고통 없이는 진보나 상승도 없다.”⁷⁹⁾ S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과 상처를 수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의식적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여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서 동굴에 이르게 된다.

(2) 동굴과 징검다리

‘동굴’은 죽음과 재생, 입문식의 장소로, 어둠, 무의식을 뜻한다.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변환과정의 시작이다.⁸⁰⁾ 즉 동굴이 나온 것은 S의 정신적 변환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이제 동굴 속에서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너간다. 징검다리도 일종의 다리이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구조물인 ‘다리’는 이행을 상징한다.⁸¹⁾ 그러므로 다리를 건너는 것은 S가 이행의 과정에 있음을 뜻한다. 징검다리를 건너자, S는 이제 15세의 소녀로 변한다.

78) Jaffe L, 심상영 옮김(2010) : 《용 심리학과 영성》,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82.

79) Jung CG(1993) : “The Symbolism of the Mandala”, CW 12, para.208.

80) Jung CG(1990) : “Concerning Rebirth”,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240-241.

81)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122.

(3) 그림자상 및 상처와의 화해

이제 그녀는 동그란 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고,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따돌렸던 친구들을 만나 화해한다. 이 친구들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대했던 S의 그림자상이다. “그림자는 우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우리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화하면, 그림자는 구원을 주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⁸²⁾ 우리가 그림자를 인식하고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수용하고 친구 삼는 것이 필요하다. S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게 될 때 자신을 비판적으로 대했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자 그 친구들은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는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 즐겁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이처럼 삶을 진보시키는 힘을 부여해 준다.

S가 한쪽 눈이 아팠던 시절이나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한 시절로 돌아간 것은 일종의 퇴행이다. “퇴행은 리비도의 움직임이 적응의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유아적인 환상이나 소망을 수반한다.”⁸³⁾ 그녀는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에 리비도가 정체되어 있었던 듯하고, 실제 BMGIM에서는 S의 경우처럼,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쌓여있는 과거의 경험을 재 경험하는 제반응의 경우가 흔하다. 힘들고 고통스런,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진보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하지만 “퇴행은 ... 내면세계의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서, 개성화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로부터 일어난다.”⁸⁴⁾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 당시의 경험을 재 경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융은, “에너지의 전진하는 운동이 방해받는 것은 주도적인 의식의 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성화된 무의식의 내용은 새로운 진보의 씨앗을 품고 있다.”⁸⁵⁾고 믿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통을 허용하여 슬픔을 겪고서 그것과 이별해야 한다.”⁸⁶⁾ 그러므로, S가 이처럼 과거를 재 경험하는 것은 그녀가 치유를 경험하고 인격발전에 이르기 위해

82) Jaffe L, 심상영 옮김(2010) : 앞의 책, p116.

83) Sharp D(1991) : 앞의 책, p89.

84) Jung CG(1981) : “On Psychic Energy”, CW 8, para.75.

85) Sharp D(1991) : 앞의 책, p89.

86) Grün A, 전현호 옮김(2003) : 《참 소중한 나》, 성바오로, 서울, p171.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여겨진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고통 받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깨어진 꽃병에 비유한, 로렌스 자피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곤 한다. “용 학파의 신화란 깨어지고 부서진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은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신이 깨어진 꽃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깨진 꽃병을 하찮게 보지만 신은 그것을 사랑한다.”⁸⁷⁾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이 깨어진 꽃병과 같고, 우리 자신은 그 모습을 열등하게 여길 수 있지만, 신은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한다는 자피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여기서 용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영성 지도자인 안셀름 그륀의 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상처들은 내가 스스로 덮어쓴 가면들을 부수어 그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 길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길]은 먼저 내가 상처들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이 상처들이 나의 참된 보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존재로 인정하여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 내가 다친 그곳에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다.”⁸⁸⁾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상처와 화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상처와 고통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는 새로운 의식성과 전체성에 도달할 수 없다. S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화해함으로써, 그 상처가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새롭게 통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관에 누워있는 어머니

친구들과 작별한 후 S는 부모님과 함께 한다. 초반에는 그들이 모두 함께 있었으나 점차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와 S만 남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세션 중에 변한다. 전반부에서는 비교적 부모님이 젊었으나, 중반부에서는 부모님이 늙게 변하고, 후반부에서는 젊고 예쁜 어머니가 차차 늙어 할머니

87) Jaffe L, 심상영 옮김(2010) : 앞의 책, pp87-88.

88) Grün A, 전현호 옮김(2005) : 《아래로부터의 영성》, 분도출판사, 칠곡, pp109-110.

같이 변한다. 특히 후반부에서 S는 눈물과 함께 어머니의 외로움, 분노, 아픔을 이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실제로 S는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어머니에게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했었다. S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융은 이런 상태가 성인에게는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런 상태가 퇴행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⁹⁾ 그는 이런 상태에 대해 “개인이 죄책감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유아적인 천진난만함과 맞바꾼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악한 아버지를 탓하고, 저것에 대해서는 사랑해주지 않는 어머니를 탓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자유를 잃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항상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피할 수 없는 인과적 관계(nexus)에 붙잡혀있다. 많은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아이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인이 된 사람은 이런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조건으로 수용할 것이다.”⁹⁰⁾라고 말한다.

심상경험에서 S는 다행히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후 할머니 모습을 한 어머니가 관에 들어가 있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의 죽음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모성원형과 모성콤플렉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모 이마고는 개인적인 부모에 대한 경험에서 개인의 정신에 만들어진 이미지와 이미 존재해온 집단적 요소 둘 다로 구성된다.”⁹¹⁾ 이처럼 융은 집단적 무의식으로 부터 유래한 원형으로서의 부모상의 영향을 강조했다.⁹²⁾ “모성은 집단적 무의식, 생명수의 원천을 나타낸다.”⁹³⁾ 모성원형의 성질에 대해 융은 “모성원형의 성질은 ‘모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 ;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적 숭고함;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

89) Jung CG(1993) : “The Symbolism of the Mandala”, CW 12, para.152.

90) Jung CG(1993) : “The Symbolism of the Mandala”, CW 12, para.152.

91) Sharp D(1991) : 앞의 책, p73.

92) 박 신, 김계희(2015) : “여성의 부성콤플렉스와 치유,” 《부성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p74.

93) Jung CG(1993) : “Individual dream symbolism in relation to Alchemy”, CW 12, para.92.

고 풍요롭게 하고 영향을 공급하는 제공자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 변용의 터고 재생의 터다.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며,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⁹⁴⁾라고 말한다.

다른 모든 원형처럼, 모성원형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성원형은 모성콤플렉스의 기초를 이룬다.”⁹⁵⁾ 우리는 내면에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 이미지를 통해 실제의 어머니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성원형을 일깨워 모성콤플렉스가 생긴다. 융은 여성의 모성콤플렉스가 모성성의 비대, 에로스의 과도한 증가, 어머니와의 동체성, 어머니에 대한 저항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⁹⁶⁾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인 S는 부정적인 모성콤플렉스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심상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심리학적으로 S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모성상의 죽음, 모성콤플렉스의 극복을 뜻한다. 딸에게 어머니는 여성적이고 본능적인 바탕 층을 의미한다.⁹⁷⁾ 그러므로 모성상의 상실은 여성으로서의 본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은, “상징적으로 딸이 더 이상 어머니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죽음은 딸의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다. 즉 딸은 그녀 자신의 형태의 여성성을 발견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고태적인 어머니-딸의 동체성은 깨진다.”⁹⁸⁾라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 이제 S는 늙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오래되고 관습적인 모성성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이것을 극복하고, 그녀 자신의 고유한, 새로운 여성성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3) 3회 세션 : 태아

S는 ‘나약한 나’의 인텐션과 Loss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 · 정서적 · 신체

9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p202-203.

9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205.

9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p209-214.

97) Jung CG(1991) : “Analytical Psychology and Education”, CW 17,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223각주.

98) von Franz ML(1993) : *The Feminine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167.

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S는 주요 이미지로 네 번째 곡(바흐의 Air in G)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태아를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세션에서 자신이 취해 야할 행동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목을 매고 죽으려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과,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S는 후자에 대해, 자신이 예전의 심상에서의 자신의 태도, 함께 슬퍼해주고 이해해주는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S는 이번 세션에서 실제로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머리카락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이 벗겨지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릴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예쁘고 어떤 일이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그들이 떠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S는 그물에 얽혀있는 머리카락에 대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고픈 느낌과 연관시켰으나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태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 안에 변화하려는 뭔가가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

(1) 목을 매는 것

S가 울고 있고 목을 매고 흔들거리고 있다. 이것은 S의 인텐션(나약한 나)과 관련하여 볼 때, S가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목매는 것(교수형)은 유보된 상태를 의미한다.⁹⁹⁾ 신화나 종교에는 목을 매는 것의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티스의 매달림, 오딘의 매달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림 등이 있다. 그들은 모두 목 매달림의 희생을 나타낸다.¹⁰⁰⁾ 목 매달림은 희생제 의다.¹⁰¹⁾ 이런 점에서, 심리학적으로 S가 목을 매는 것은 자아의 희생을 뜻한다. 특히 “차크라에 대한 힌두교의 가르침에서 목은 이성(로고스)의 세계, 말의 세계의 중심이다.”¹⁰²⁾ 따라서 목 매달림은 그녀의 로고스 원리가 희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99) Boa F, 박현순, 이창인 옮김(2004) : 《융 학파의 꿈해석》, 학지사, 서울, p199.

100)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113.

101) Jung CG(2008) : *Children's Drea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84.

102) Boa F, 박현순, 이창인 옮김(2004) : 앞의 책, p195.

용은, “죽음은 의식의 절대적인 소멸을 의미하며 그로써 그것이 의식 가능한 심적 생활의 전적인 정지상태를 의미한다.”¹⁰³⁾고 말한다. 연금술사들이 지적한 대로, “낡은 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어떤 새 생명도 생길 수 없다.”¹⁰⁴⁾ 폰 프란츠에 의하면, “꿈속에서 자신의 죽음은 예전의 모습이나 태도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급진적이고 완벽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살당하거나 사형선고, 총살, 교수형 등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라도 그것은 언제나 급진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⁰⁵⁾ 상징적으로, 죽음은 자아의 낡은 태도가 극복되어야 함을 뜻한다. 자살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뜻하고,¹⁰⁶⁾ 여기서 S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녀가 실제로 자살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가 새로워지기 위해 그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바닷물에 빠진다. 그 다음에 그녀는 물위를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몸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 속에 혼자 있다고 느낀다. ‘버림받음’은 영웅 신화의 주요 주제다. 이것은 “영웅의 탄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영웅의 탄생은 정신의 탄생을 의미한다.”¹⁰⁷⁾ 이런 점에서, S가 자신을 버려진 나무 조각처럼 초라하고 안정감 없고 생명력 없는 존재로 느끼지만, 버림받은 느낌은 S의 인격발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버림받은 느낌이 그녀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다음 용의 말에서 입증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도움이 되는 힘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고 외로운 상태에 처해 있을 때뿐이다.”¹⁰⁸⁾

103)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281.

10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278.

105) Boa F, 박현순, 이창인 옮김(2004) : 앞의 책, p67.

106)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5) : 앞의 책, p57각주.

107) Jung CG(1990) :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CW 9i, para.285.재인용 : 이유경(2010) :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 콤플렉스”, 《심성연구》, 25(1) : p88.

108) Jung CG(1989) :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525.

(2) 머리카락을 벗어 버림

S는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기 위해 애쓰지만 그물에 머리카락이 엉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녀에게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이 닥친다. 폰 프란츠에 의하면, 머리카락은 머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의식의 불수의적인 생각과 환상의 투사를 의미한다.¹⁰⁹⁾ 따라서 머리카락이 그물에 걸려 수면위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적인 생각과 환상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한다. 특히 그물에 걸린 머리카락에 대한 S의 연상, 즉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과 ‘나약한 나’라는 인テン션과 관련지어 본다면, 그것은 S가 자신이 나약하다는 생각이나 자신을 구속하는 생각에 갇혀 부자유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S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갈고리에 손이 찢려 피가 나기도 하고, 갈고리들이 너무 많아 그물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 갈고리는 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성적·합리적 태도를 뜻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바늘처럼 부정적 아니무스에 의한 자학과 관련이 있다.¹¹⁰⁾ 이런 갈고리들이 많고, 또 손이 찢리는 것은 S가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 아니무스의 의견으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고 평가절하 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여성스러운 아름다움, 자기다움과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S는 머리카락을 벗어 던져버리고 대머리가 되면 사람들이 놀릴까봐 겁을 낸다. 하지만 그녀는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과감하게 머리카락을 벗어 던진다. 이것은 S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태아 같은 생명체

S가 머리카락을 벗어 던졌을 때, 그녀는 태아 같은 생명체가 해변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태아처럼 발달이 덜 된, 더 성장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다. 태아의 심리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융의 어린이에 대한 언급이 도움이 된다. “‘아기’ 탄생의 현상들은 언제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심리학적 근원 상태, 그러니까 어둠 혹은 여명, 주체와 객체의 무분별성, 인간과 세계의 무의식적 동일성으로 되돌아간다.”¹¹¹⁾ 이를 통해 볼 때, 태아

109) von Franz ML(1993) : 앞의 책, p75.

110) 박 신, 김계희(2015) : 앞의 책, p217.

111)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262.

는 분화가 덜 된 미래의 가능성을 뜻한다. 태아가 모래사장에 혼자 있어서 춥고 말라 버릴 것 같아, 그녀는 던져버렸던 그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태아를 덮어준다. 그러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되고 아이가 편안해 보인다.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이에게 덮어주는 것은 아이, 즉 새롭게 탄생한 그녀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또 이와는 달리, 그녀가 버렸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된다는 것은 다소 부정적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S가 버린 머리카락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생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S가 버렸던 머리카락이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버려야할 무의식의 불수의적인 생각과 환상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4) 4회 세션 : 소라에서 나오는 빛

S는 3회 세션의 마지막 이미지에 대해 아이에게 머리카락이 가발처럼 씌어져서 아이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녀 자신은 아이가 쓰고 있는 가발이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고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번 세션에서 S는 '내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인턴션과 Depth Bach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신체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S는 주요 이미지로 마지막 곡(바흐의 Air in G)에서의 빛이 나오는 소라목걸이와 그 목걸이에서 나오는 온기를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세션의 경험이 통합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과, 소라껍질에 맺혀 있던 눈물방울이 자신 안에 있었고, 이 아픔을 통해 자신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통찰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보다 명확해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1) 소라껍질 속으로 남자아이와 태아가 들어오는 것

심상의 시작 부분에서 짧은 머리의 남자아이와, 3회 세션에 등장한 태아가 소라껍질 속으로 들어온다. “소라는 ‘출현’의 기원을 의미하는데, 이 사실은 태고의 물과 중심점으로부터의 나선형의 성장과의 관계에 의해 입증된다… 소라는 미래의 순환의 씨앗과 잠재적인 발전을 담고 있다… 소라는 달, 물, 임신과 풍요와 같은 원형에서 그 특징을 끌어낸다.”¹¹²⁾ 소라는 조개와 같은 상징성

112)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앞의 책, pp229.

을 가지는데,¹¹³⁾ 조개는 “여성적인 물의 원리로서 우주의 모태, 탄생, 재생, 생명, 사랑, 결혼을 나타내며, 또한 풍요를 상징한다… 중국에서는 음의 여성원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수, 부활, 장송을 나타낸다.”¹¹⁴⁾

이 심상에서 태아가 소라껍질 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소라는 어머니의 자궁이 아이를 품듯, 남자아이와 태아를 품는 그릇처럼 보인다. “간히는 상태는 새로운 탄생 바로 직전의 잠복상태를 의미한다.”¹¹⁵⁾ 따라서 S의 심상에서 소라가 남자아이와 태아를 담고 있는 것은, 그녀의 미래의 가능성이 아직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S는 소라껍질을 목에 걸어야 할지 깨뜨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소라껍질을 관찰하자, 거기에 물이 맺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S는 소라껍질에서 떨어지는 물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표현된 눈물과 연관시켰고, 이 눈물로 인해 심상은 다시 바다와 연결된다. 소라껍질에 맺힌 물이 S의 얼굴에 떨어지자 바다 속에서 한 여자가 등장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눈을 감은 채, 움직임이 없고 힘이 없는, 만화속의 인물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였지만, 나중에는 소라껍질을 목에 매고 있고 수영을 잘하는 생동감 있고 성숙한 여자로 변한다. 그녀는 낯선 외국인인으로 S의 그림자상으로 볼 수 있다. S는 1회 세션에서 물속을 두려워하면서 무의식에 대해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 그림자상이 소라껍질을 목에 매고 수영을 잘하는 것은 S가 소라껍질을 목에 매듯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수용하고, 무의식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리문에 갇히는 것

S는 다시 겨우 지나갈 만한 바다 속의 좁은 길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이 좁은 길은 마치 자궁과 같은 무의식을 나타내는 듯하고, S는 예전에 다른 BMGIM 치료사와 작업했던 장면, 즉 물속에서 큰 유리문에 갇혀서 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이번 세션에서 재 경험한다. 연금술에서는 유리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에 영화된 몸(glorified body)과 유사하다고 본다.¹¹⁶⁾ 폰 프란츠는 유리를 통해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고, 수정

113)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81.

114)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315.

11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116.

116) Jung CG(1989) : “The Personification of the Opposites”, CW 14, para.319.

처럼 ‘정신적인 물질’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지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물질이며, 사람들은 주위환경과 정서적으로 단절됐다고 느낄 때 자신과 다른 이들이나 주위 환경이 유리 벽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¹¹⁷⁾ 이처럼 우리는 일종의 칸막이와 같은 것으로 S가 유리문에 갇혀있는 것은 그녀가 타인이나 주위환경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뜻한다.

(3) 동굴 안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모피코트를 벗는 것

그 다음 장면에서 동굴이 등장하고, S는 유리문을 통과한다. 그리고 중세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암벽 위, 빛이 나오는 작은 구멍을 향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간다. 그런데 오르막길이 미끄럽고 위험하며, 통과해야 할 구멍은 너무나 좁다. “구멍은 미지의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출발의 상징이다.”¹¹⁸⁾ ‘좁은 구멍이나 길을 통과하기’의 주제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통과 의례의 주제로, 통과 의례가 시련을 거쳐야만 되는 어려운 과정임을 나타낸다.¹¹⁹⁾ 또한 이것은 S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통과하듯,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 S가 좁은 구멍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모피코트를 벗어 버린다. 코트는 추위로 부터 몸을 보호하는 옷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S의 태도, 즉 그녀의 페르소나와 관계가 있다. 그녀가 모피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S가 과도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모피코트를 벗듯이, 페르소나에 얽매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후 S는 소라목걸이도 버릴까 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목에 걸고, 좁은 구멍을 빠져 나간다. 그런데, 그녀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 그녀 앞에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와 매우 좁은 길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길에 들어서자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그녀는 힘이 생긴 것을 느낀다. “신발은 우리의 의상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일부를 나타내고, 현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일치한다. 신발은 우리가 발로 땅위에 얼마나 굳건히 서있는지, 그리고 땅이 우리를 얼마나 굳건히 지탱해주는지 우리의 가능성의 정도를

117) von Franz ML(1990) : 앞의 책, p15.

118) Matthews B(1993) : 앞의 책, p99.

119) 이부영(2002b)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173.

보여준다.”¹²⁰⁾ S는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현실에 발을 굳건하게 디딤으로써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 좁고 위험한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4) 소라목걸이에서 나오는 빛

S는 이제 자신이 메고 있던 소라목걸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이 빛은 S에게 온기를 주면서 긍정적인 정서(행복감)와 통합의 느낌을 준다. “[빛은] 비물질성, 영(spirit)과 신(God)뿐만 아니라 생명과 행복의 일반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빛은 종종 어둠과 자주 대조되는데, 여기서 어둠은 인식의 실패, 영적인 둔감, 도덕적으로 발달되지 못했거나 열등한 영역과 상태, 죽음, 불행이나 신비를 나타낸다.”¹²¹⁾ 빛은 의식을 나타낸다.¹²²⁾ 또한, 모든 민족의 창조신화는 무의식의 어둠에서 탄생된 의식의 빛인 자아의 창조에 대해 언급한다.¹²³⁾

빛은 자연의 빛(*the lumen naturae*)과 관련이 있다. 자연의 빛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의식을 밝게 한다.¹²⁴⁾ 파라켈수스는 그것을 ‘자연이 지니고 있는 최초의 가장 값진 보배’, 값진 진주로서의 ‘하나인 것’, 혹은 감추어진 보물, ‘손에 넣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고 불렀다.¹²⁵⁾ 또한 그는 신성력(numinosity)과 광도(luminosity)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속에 무엇인가 신성한 누멘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인간 속에 자연스런 빛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누멘과 루멘, 오직 이 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둘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이 둘이 인간 속에 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없이 있을 수 있다.”¹²⁶⁾

S는 초반에 소라껍질을 망치로 깨뜨릴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버릴까 갈등도 하지만, 이 소라목걸이를 끝까지 간직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는, 소라목걸이에는 짧은 머리의 남자아이와, 3회 세션에서 경험한 태

120)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228.

121) Matthews B(1993) : 앞의 책, p119.

122) Jung CG(1993) : “Individual dream symbolism in relation to Alchemy”, CW 12, para.259.

123) Edinger EF, 장미경 옮김(2016) : 《자아발달과 원형》, 학지사, 서울, p170.

12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앞의 책, p53.

12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앞의 책, p55.

12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앞의 책, p52.

아와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직 성장이 덜 된 남성적 측면인 남자아이, 아직 분화가 덜 된 미래의 가능성인 태아와 S의 아픔과 상처는 그녀가 직면해야할 원질료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비록 작고 약한 존재들이고, 상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S는 이들이 소중한 것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 가장 귀한 것, 새로운 의식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원질료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1회 세션에서도 밤의 항해의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세션에서도 그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즉, S가 경험한 바다 속의 좁은 길, 동굴, 유리문 통과하기, 미끄럽고 위험한 오르막길 오르기, 좁은 구멍 통과하기는 민담에서처럼 영웅이 거쳐 가야하는 밤의 항해와 같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용은 밤의 항해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영웅은 리비도 운동의 상징적인 대표자다. 용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퇴행적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에 수반되는 사건인 동쪽으로의 여행(밤의 항해)은 정신적인 내적 세계의 조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상징한다. 영웅이 용의 뱃속에 완전히 삼켜지고 사라지는 것은 외적 세계의 관심에서 완전히 철회되는 것을 나타낸다. 내면의 괴물을 극복하는 것은 내적 세계의 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영웅이 새의 도움으로 괴물의 배에서 탈출하는 것(빠져나오는 것)은 일출의 순간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보의 재개를 상징한다.”¹²⁷⁾

S는 밤의 항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빛, 즉 새로운 의식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션을 통해 S는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힘을 얻은 듯하다.

5) 5회 세션 : 빛과 새로운 탄생

S는 4회 세션에서의 마지막 장면,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길’의 인텐션과 Paradox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S는 주요 이미지로, 다섯 번째 곡(The Prayer cycle-Strength)에서의 유리관에 누워 자신이 죽어가는 장면, 여섯 번째 곡(The Prayer cycle-Hope)에서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된 느낌, 마지막 곡(Gladiator-Now we are free)에서의 가슴에 간직한

127) Jung CG(1981) : “On Psychic Energy”, CW 8, para.68.

공과, 예전에 다른 BMGIM 치료사와 가졌던 세션에서의 만다라 장면, 즉 풀밭에 새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띠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언급했다. S는 토의에서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몰입된 모습을 보였고, 눈물의 의미를 ‘감사’와 연관시켰으며, 만다라의 붉은 원이 심상경험에서 하나 된 느낌으로 시각화된 ‘공’과 연관된 것 같다는 통찰을 보였다.

(1) 나비가 인도하는 것

첫 장면에서 나비가 등장한다. 작은 몸체로 가볍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곤충으로 여겨져 왔고, 고대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나비로 변한다고 믿으면서, 나비가 불멸의 인간 영혼을 상징한다고 보았다.¹²⁸⁾ 후기시대에는 나비의 즐거운 날개 짓을 에로스, 즉 사랑의 신과 연관 지었다.¹²⁹⁾ 프시케 신화에서, “프시케는 나비의 날개로 묘사된다.”¹³⁰⁾ 나비는 완전한 변태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매장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¹³¹⁾ 즉 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¹³²⁾

융은 나비를 육체적 죽음이 파괴하지 못하는 영혼¹³³⁾ 및 곤충의 모습을 한 자기의 상징으로 보았다.¹³⁴⁾ 그는 “나비의 이미지에서 정신의 치유력을 보았고, 정신의 치유력은 자기의 변환을 통하여 나타날 때 생긴다.”¹³⁵⁾고 했다. 달리 말하면, “나비는 정신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과정을 암시한다.”¹³⁶⁾ 그런데 이번 심상경험에서 나비는 S의 옷을 물고, 그녀를 안내한다. 여기서는 나비가 S를 인도하는, 도움이 되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중재하는 정신적 요소인 영혼의 안내자일 수 있다. 나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좀 겁이 나고 무섭지만, 그녀는 나비의 인도를 따라 내면여행을 시작한다.

12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4) : 앞의 책, p145.

129) Matthews B(1993) : 앞의 책, p30.

130)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앞의 책, p140.

131) Welch J, 심상영 옮김(2000) : 《영혼의 순례자들》, 한국기독교연구소, 서울, p210.

132)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48.

133) Jung CG(1981) : “Basic Postulates of Analytical Psychology”, CW 8, para.663.

134) Jung CG(1990) :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Kore”, CW 9i, para.315.

135) Welch J, 심상영 옮김(2000) : 앞의 책, p190.

136) Welch J, 심상영 옮김(2000) : 앞의 책, p210.

(2) 유리관에 갇히는 것

어느덧 S는 유리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차오르자 질식하여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 그녀는 유리관에 갇힌 상태로 보이며, 4회 세션에서 처럼 여기서도 다시 유리의 주제가 나온다. 용 분석가 지빌레 비르크호이저-왜리는 백설 공주가 유리관에 갇힌 상태에 대해, “난쟁이들이 죽은 백설 공주를 넣어 놓은 유리관은 마치 백설 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에 생생한 참여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가리개 같은 것이다… 백설 공주는 죽음과 비슷한 상태로 유리관에 누워 있고, 다른 사람은 그녀를 볼 수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은 고립의 상태이고 삶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반쪽 인생만을 살게 된다.”¹³⁷⁾라고 말한다. 관은 ‘죽음을 부르는 모성 원리, 죽음의 모성의 상징’¹³⁸⁾이며, S가 유리관에 갇혀있다는 것은 그녀가 삶과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3) 죽음과 세례

이제 S는 유리관에서 나와서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사와 간호사가 죽은 사람을 옮기는 모습을 본다. S는 눈물 같은, 죽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혀 자신의 얼굴에 무언가를 그린다. 또 그녀는 누군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죽은 것을 본다. 3회 세션에서 S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려는 장면이 있었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목을 매어 죽는다. 하지만 S가 이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자, 좀비 같은 것들이 그녀에게 달려든다. 좀비는 마법에 걸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떠도는 존재다. 이것은 어쩌면 S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파괴적인 그림자상 혹은 부정적인 아니무스상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S는 자신이 죽은 것 같다고 느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당 혹은 교회 같은 곳에서 투명한 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죽음’의 주제가 나온다. 심리학적으로, S의 죽음은 생명력 있는 삶을 방해해 왔던 그녀의 낡은 자아의 의식적 태도가 극복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죽음(*mortificatio*)은 연금술에서 암흑, 패배, 고뇌, 절단, 사망 그

137) Oeri SB, 이유헌 옮김(2012) :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77.

138) Oeri SB, 이유헌 옮김(2012) : 앞의 책, p77.

리고 부패와 연관되는 가장 부정적인 작업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의 이미지는 종종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장, 부활, 재탄생을 유도한다.”¹³⁹⁾

따라서 S의 죽음은 재탄생의 전조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재탄생은 “재생(renewal)이나 인격의 변환으로 경험되는 과정이다.”¹⁴⁰⁾ 용은 재탄생의 다섯 가지 다른 형태를 구별하고 특히 개성화에 상응하는 심리적 재탄생에 집중했다.¹⁴¹⁾ 이것은 “본질적인 변환, 즉 개인의 전면적인 재탄생이다. 여기서 재생은 본질적인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성(transmutation)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에서 신적인 존재로의 변환을 그런 예로 들 수 있다.”¹⁴²⁾

이어 S는 세례를 받고 있다. 세례는 영적인 정화를 통한 입문 과정이며, 재탄생을 나타낸다.¹⁴³⁾ 세례에 의해 씻겨나가는 흙먼지 또는 죄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의식이나 그림자에 해당하고, 심리적인 깨끗함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그림자 투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⁴⁾ 세례가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S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자아의 낡은 태도가 극복되고 인격의 변환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몸이 공중에 뜨는 것

세례를 받은 후 S는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용은 죽음의 과정 뒤에 따르는 영혼의 상승과정에서의 ‘의식 긴장도의 저하’상태인 공중부상(空中浮上)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정신적 혼란에 빠진 순간에 주관적으로 공중부상을 감지한 몇몇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암시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른바 마녀의 잠의 현상, 다른 한편으로는 심령 심리적 공중부상에 해당되는데 자주 성인들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¹⁴⁵⁾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139)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177.

140) Sharp D(1991) : 앞의 책, p87.

141) Sharp D(1991) : 앞의 책, p87.

142) Jung CG(1990) : “Concerning Rebirth”, CW 9i, para.203-204.

143)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257.

144)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88.

145)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앞의 책, p291.

는 사람이 현실(땅)과 접촉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사람이 관념과 착각의 세계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⁶⁾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초개인적이고 누미노제적인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서 S의 경험은 후자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중부상의 경험 이후에, 종교적 의례와 관련이 있는 기도의 주제와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과 공의 이미지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5) 기도를 통해 S가 그녀 자신을 수용하는 것

1회 세션에서는 S가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반면에, 여기서는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관에 누어있는 S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S는 내면의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시도한다. 이 기도는 적극적 명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대화와 같은 것이며, 이런 대화를 통해 그녀는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공감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확인한다. 이 기도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을 수용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의 본질이며 삶에 대한 자신의 전체적인 관점의 시금석이다.”¹⁴⁷⁾ 전적인 자기수용 없이,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도 없다. 이런 자기수용의 과정은 자신과의 화해 과정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이나 자신의 삶과 화해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이거나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부정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치료의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역사와 특성을 긍정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화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⁸⁾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며¹⁴⁹⁾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그 상처를 잘 대할 때 그것이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바뀔 수 있다.¹⁵⁰⁾

S는 2회 세션에서 한쪽 눈이 아팠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돌렸던 친

146) Boa F, 박현순, 이창인 옮김(2004) : 앞의 책, p193.

147) Jung CG(1989) :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CW 11, para.520.

148) Grün A, 한연희 옮김(2003) :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성서와 함께, 서울, p127.

149) Grün A, 한연희 옮김(2003) : 앞의 책, p141.

150) Grün A, 한연희 옮김(2003) : 앞의 책, p143.

구들과 화해하는 심상을 경험했으며, 이번 세션에서도 자신과 화해하는 심상을 경험했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의 화해는 S의 인격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 S가 내적인 대화를 직접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녀가 자아의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심상경험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심상의 내용들을 자신에게 각인하는 강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S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을 것 같다.

(6) 원과 공

이후 S는 내면의 인물들의 전적인 지지와 수용을 통해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여 원을 만들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한다. 원은 마술적 원인 만다라, 자기의 전체성의 심리적 표현을 상징한다.¹⁵¹⁾ 원으로 표현된 만족스럽고 하나 된 느낌은 보다 더 입체적으로 공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S는 그 느낌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심장에서 느낀다.

공은 외부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즉흥적인 정신의 자기충동(self-impulsiveness)’의 상징이며¹⁵²⁾ 궁극적으로 전체성에 이르게 한다. 원처럼 둥근 공도 온전함, 부족함 없는 심적 상태를 나타낸다. S가 공으로 표현된, 하나 된 느낌을 그녀의 심장에서 느낀다는 것은 전체성이 주는 만족감을 전적으로 가슴깊이 경험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S는 새로 태어난 느낌을 경험한다.

(7) 길 떠날 준비를 하는 것

S는 다시 길 앞에 서있다. 그녀는 운동화 끈을 매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힘내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심상의 첫 부분에서 나비가 이끄는 길을 출발하기를 무서워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이 생긴듯하다. 그러자 바람이 불고 풀밭에 새소리가 들리는, 행복감을 주는 길이 펼쳐진다.

길(道)은 심리학적으로 ‘의식적으로 가는 것, 혹은 의식적인 길’을 뜻한

151) Jung CG(1990) : “A Study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CW 9i, para.542.

152)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101.

다.¹⁵³⁾ 특히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실현, 개성화와 관련된다.¹⁵⁴⁾ 결국, S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S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녀 자신의 삶을 살아가갈 준비가 된 것 같다.

6) 6회 세션 : 진주

S는 ‘이번 BMGIM 경험에서 발견한 내면의 힘과 성장을 가지고 현실에서 잘 살아가고 싶다.’는 인텐션과 Migration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S는 주요 이미지로 두 번째 곡(Initiation)에서 밧줄과 같은 밧줄을 타고 어머니에게 내려가 어머니 손을 잡아 드리는 모습과, 네 번째 곡(Surrender)에서 진주를 자신의 손에 넣었을 때의 순간을 언급했다. 그녀는 밧줄과 같은 밧줄을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와 연관시켰다. 그녀는 1년 전 BMGIM의 경험, 즉 자신이 집밖에서 밧줄을 타고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올라가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세션에서 그녀가 집밖에 있는 어머니에게 내려가 그녀와 함께 있어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 것,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한 것, 그리고 밧줄 같은 밧줄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진주를 지금까지의 세션을 통해 경험한 내면의 힘과 성장가능성과 연관시켰다. 처음에는 진주를 마음에 담으면 아플 것 같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가슴에 담고 진주가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1) 어머니와의 유대와 화해

S가 방에 앉아 있고 밧줄이 바닥과 창문에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집밖에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밧줄’은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생명 줄이다. 이 장면에서는 밧줄이 S와 어머니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S가 아직 심리적으로 모성과의 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녀가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후 S는 여

153) Jung CG(1983) : “Commentary on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CW 13, para.28.

154) 이부영(2002b) : 앞의 책, p172.

전히 차갑고 따뜻하지 않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S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실제의 어머니와 같은 모성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이렇게 될 때 S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2) 진주의 상징적 의미

다시 S는 그녀의 어머니가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몹시 슬퍼한다. 그런데 울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서 4회 세션에서 나왔던 소라껍질의 주제가 다시 나온다. 그녀는 소라껍질을 만지면서 소라껍질 속에 들어간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위로한다. 이후 S가 떨어뜨린 소라껍질이 동그랗고 작은 구슬, 곧 진주로 변한다.

“신비주의 관점에서, 진주는 도마복음의 ‘진주의 찬가’에서 보여 질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enlightenment)과 정신적 탄생의 상징으로 간주된다.”¹⁵⁵⁾ 융은 빛나는 진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의 어둠 안에 보물 하나가 숨겨져 있다. 이 보물은 … ‘쉽게 얻을 수 없는 보배’로서, 빛나는 진주라는 특징이 있다. 혹은 파라켈수스에서는 그것이 특히 매혹적인 것을 의미하는 ‘불가사의(mysterium)’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퇴행의 궁극적인 것, 그러나 무의식적인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정신적인’ 혹은 ‘상징적인’ 삶과 진보와 같은 가능성 들인 것이다.”¹⁵⁶⁾ 진주는 어린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매우 어렵게 다다를 수 있는 보배로운 것’의 특수한 주제로서의 어린이 주제는 극도로 변할 수 있어 보석, 진주, 꽃, 담는 용기들, 황금 알, 사위일체, 황금 공 등과 같은 형상을 취한다.”¹⁵⁷⁾

S가 소라껍질 속에 들어간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위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진주는 S의 자아의 모습을 나타낸다. S는 자존감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여성이다. “어떤 사람의 자기나 자존감이나 존엄한 느낌이 깊은 상처를 입을 때, 이것은 영혼, 곧 마음에 새겨진 신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는 것과 같다… 융 학파 분석의 궁극적인 과제를 ‘개개인 안에 있는 신의 이미지를 복원하는

155)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앞의 책, p745.

156)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271.

15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p247-248.

것'으로 말할 수 있다."¹⁵⁸⁾ 용에 따르면, “영원한 이미지들의 살아있는 현존만이 인간의 정신에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존엄성은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영혼을 지지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또 그가 그것을 견딜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다.”¹⁵⁹⁾ 우리가 “자아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면, ...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즉 자신의 개인적인 통전성을 유지해주는 위엄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¹⁶⁰⁾ 이렇게 볼 때, S의 존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S가 심상에 나오는 진주를 내면의 힘과 성장가능성이라고 통찰했다는 점에서, 진주는 그녀의 인격발달을 위한 가능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주는 달과 여성의 상징이다.¹⁶¹⁾ 여성의 인격발달은 여성으로서의 자기다움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진주는 S의 여성적인 자기다움을 드러내 주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S는 이 진주가 동그랗고 매끄럽고 예쁜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힘을 자신에게 주고, 자신이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예로부터 진주는 조개가 살을 찢는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대개 진주는 고통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심상에서의 진주도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S 자신과 연관될 수 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며, 슬픔과 고통이 없이는 보물, 곧 진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약한 자아상과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진 S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 어린 시절의 상처를 수용하기,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심상경험을 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긍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 보다 긍정적인 힘과 성장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으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S는 어머니를 여성으로서,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158) Jaffe L, 심상영 옮김(2010) : 앞의 책, p107.

159) Jung CG(1989) : “Rex and Regina”, CW 14, para.511. 재인용 : Jaffe L, 심상영 옮김 (2010) : 앞의 책, p48.

160) Jaffe L, 심상영 옮김(2010) : 앞의 책, p55.

161) Matthews B(1993) : 앞의 책, p146.

특히 S의 심상 경험은 용해, 응고, 죽음 등의 연금술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세션은 문제에서 시작하여 해결의 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각 세션을 시리즈로 보았을 때도 각 세션의 마지막 상징인 나무, 아이, 빛, 진주 등 매우 의미 있는 심상이 제시되면서, S가 인격의 발전이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정신이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C의 사례

C는 음악치료 인턴과정 중에 있던 학생이며, 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삶과, 타인—특히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갈등에서 비롯된 무력감과 부자유함이 주된 이슈였다. 그녀는 관계지향적인 아버지와 더 친숙하고, 성취 지향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어머니를 힘들어하는 여성이다. 세션은 주 1회씩 총 6회 동안 BMGIM의 절차에 따라 총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 후 C는 결혼하여 다른 도시로 이사 가기 전까지 총 7회의 꿈 분석을 나에게 받은 적이 있다.

1) 1회 세션 : 바다 위 동물원

C는 ‘어딘가 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왜 튜브 바람이 빠질까?’의 인텐션과 Reflections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통찰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두 번째 곡(드뷔시의 The Engulfed Cathedral)에서 돌고래와 코끼리가 하늘에서 미끄럼을 타고 바다로 내려올 때 경험한 벅찬 느낌을 언급했다. 그녀는 이런 느낌을 당시 준비 중인 석사논문 작업 중 자신이 원했던 논문 자료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연관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인텐션(자신의 에너지를 빠지게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논문 준비와 관련된 조급함, 부모님께 더 좋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부담감, 음악치료사로서 인턴에 대한 불안감과 지나치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염려하는 마음 등과 연관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삶에서의 즐거움을 무시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통찰을 얻었다.

(1) 튜브 없이 수영하는 것

첫 장면에서 C는 바닷물에 떠 있다. 이후 튜브가 사라진 것을 보면, 그녀는 튜브를 타고 물에 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튜브는 물에 떠있게 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도구다. C가 튜브를 타고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쉽게 가는데, 이것은 그녀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빛, 곧 의식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리를 넘어가자 튜브가 사라졌지만, C는 배영을 하듯 편안히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간다. 튜브가 없으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다. 즉 무의식에 압도되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C는 자신의 힘으로 수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C가 무의식에 압도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아가 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돌고래와 코끼리가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것

이후 돌고래와 코끼리가 하늘에서 미끄럼을 타고 바다로 내려온다. 여기서 동물의 주제가 나온다.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꿈과 적극적 명상에서 만나게 되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본능을 나타낸다.¹⁶²⁾ 하강은 가능성의 실현, 잠재력을 실재화하는 것, 땅에 묶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연금술 과정의 응고와 관계된다.¹⁶³⁾ 따라서 동물이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온다는 것은 본능의 동화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두 동물은 각각 바다와 육지의 생물이지만, 이들이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온다는 것은 C의 동물적 본능이 하늘, 즉 정신적 영역에 있었고, 그녀의 본성적 삶과 분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능과의 분리는 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며, 이것은 신경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신경증은 본능, 본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과도하게 정신화(psychization)를 겪은 본능은 자율적 콤플렉스의 형태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신경증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다.”¹⁶⁴⁾ 이런 의미에서, C의 본능적 측면이 지나치게 억압되었을 수도 있다.

162) Hannah B(2006) :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p3.

163)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99.

164) Jung CG(1981) :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ing Human Behaviour”, CW 8, para.255.

C는 두 동물이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광경을 보자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벅찬 느낌을 갖는다. 그녀는 기운이 빠지는, 에너지가 없는 인텐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 그녀는 활력이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녀의 심상에 등장한 돌고래와 코끼리는 도움을 주는 동물들로 여겨진다. “용은 민담과 신화에서 도움을 주는 동물들이 영웅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가까이서 자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영웅을 구하는지, 때때로 동물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모든 해결책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말한다.”¹⁶⁵⁾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본능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혜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 훨씬 더 보호받게 된다.¹⁶⁶⁾

바바라 한나에 의하면, “꿈과 적극적 명상에 나오는 동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삶의 원천으로 이를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이다.”¹⁶⁷⁾ 그러므로 본능의 동화는 본성적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능을 의식화하는 것은 의식성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본능은 인간의 무의식적 정신기능이며, 거기에 의식이라는 황금을 추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⁸⁾ 따라서 C의 심상에 등장하는 두 동물은 그녀의 자연스런 삶의 근원이 되는 긍정적인 본능적 측면이다. 꿈과 다른 무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동물상징은 동물의 정신으로서, 인간의 의식과는 거리가 먼 무의식성의 단계를 나타내고, 온혈동물이나 냉혈동물이나 무척추동물 조차도 무의식성의 정도를 나타낸다.¹⁶⁹⁾

이런 점에서, 포유류인 돌고래와 코끼리는 인간과 가까운 무의식 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돌고래는 지능적이고, 우호적이며 기동성이 있는 바다동물이다. “미노스 문명에서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돌고래는 신처럼 여겨졌다. 그리스에서 돌고래는 특히 빛의 신인 아폴로에게 만이 아니라 디오니소스(바다 여행의 보호자), 아프로디테(바다에서 태어남), 그리고 포세이돈(바다의 신)에게도 바쳐졌다.”¹⁷⁰⁾ 바다의 힘을 대표하는 돌고래는 자유, 너그름, 정다움,

165) Hannah B(2006) : 앞의 책, p7.

166) Jung CG(1997) : *Vision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33.

167) Hannah B(2006) : 앞의 책, p14.

168) Jung CG(1997) : *Visions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065.

169) Jung CG(1978) : “Gnostic Symbols of the Self”,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291.

170) Matthews B(1993) : 앞의 책, p59.

사랑, 즐거움,¹⁷¹⁾ 그리고 재생의 힘¹⁷²⁾을 상징한다. 동시에 돌고래는 “구원자,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 저승에 있는 혼의 안내자, 난파선의 구조자, 물고기의 왕, 바다의 신으로 안전과 낚섬의 상징이다.”¹⁷³⁾

반면에 코끼리는 “정신적인 힘, 현명을 상징하고 힘과 에너지를 대표하는 동물이다.”¹⁷⁴⁾ 코끼리 두상을 한 힌두교의 신인 가네샤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 지혜의 신으로 숭배되었다.¹⁷⁵⁾ 에너지가 없다는 인텐션과 관련지어 보면, 돌고래는 자유, 즐거움, 재생력의 상징이며, 코끼리는 힘, 에너지를 나타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C가 이런 본능적 측면을 통합할 때 자유와 활기가 있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3) 섬과 바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이후 C는 해변을 걷고 있고, 섬과 바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고민한다. 어떤 신뢰할만한 사람이 그녀에게 섬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섬에 내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될까봐 주저한다. C는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없이 슬픔, 고독, 고통, 외로움, 두려움을 경험한다. 이후 C는 자신의 길을 가야하고 혼자 싸워내야 하며, 이 상황에서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포용력이 남자친구와 친한 언니에게 있다고 투사하면서, 그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다음 장면에서 C는 그녀 주위에 있는 빛을 그녀의 다리에 채우고 싶어 한다. 이것은 C가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갖고 보다 더 의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모님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담감을 가진 채 심상경험이 끝난다. 이것은 C가 자신이 가야할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혼돈과 방향상실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171) Jobes G(1961) :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I*, The Scarecrow Press, Inc, New York, p459.

172)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앞의 책, p303.

173)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105.

174)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2000) :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 동아 출판사, 서울, p686.

175) Cotterell A, 도서출판 까치 편집부 옮김(2002) :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 까치, 서울, p90.

2) 2회 세션 : 나를 살렸던 비전(vision)

C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인텐션과 Explorations 음악프로 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신체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세 번째 곡(체스노코프의 Salvation is created)의 장면을 언급했다. 이 장면은 음악-심상화 경험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종결부에서 보고된 것이다. 그 장면의 한쪽에서는 성당에서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흑인아이들과 흑인어른들의 시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있다. C는 1회 세션에서 경험한 섬의 이미지를 가정이나 안정감과 연관시켰고, 이번 세션의 인텐션과 관련하여 빛이 있는 쪽은 종교적이고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과 연관시켰다. 그녀는 빛이 있는 쪽이 자신이 가야할 목적지인데, 현재 자신의 삶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C는 이번 세션에서, 그녀가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녀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재확인했다.

(1) 산호를 왕좌에 앉은 남자에게 주는 것

C는 동굴을 지나 빛이 있는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쳐간다. 이후에 C는 바다 속에서 산호를 꺾는다. “바다 속의 나무인 산호는 나무(세계의 축)와 심해(세계의 기원)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산호가 메두사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방울에서 생겨났으며…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 그 자체가 산호가 되었다.”¹⁷⁶⁾ 산호는 “태모신이 바다에서 기르는 나무로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달, 바다의 풍요로움을 뜻한다.”¹⁷⁷⁾ 용은 산호를 바다에서 자라는 철학적 나무에 비유한다. 쿤라트에 의하면, 작은 소금 샘에서 태양과 달의 나무, 바다의 붉고 흰 산호나무가 자라며, 소금과 바닷물은 모성적인 소피아의 가슴에서 나오고, 그것을 지혜의 아들들(*filii Sapientiae*), 철학자들이 마신다.¹⁷⁸⁾

즉, 산호는 철학적 나무처럼 전체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¹⁷⁹⁾ 이번 세션에서 왕좌에 앉아 있는 남자는 왕과 같은 상위 인격의 인물로 볼 수 있다. C는 자

176)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앞의 책, p235.

177)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 앞의 책, p82.

178) Jung CG(1983) :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para.406.

179) Jung CG(1983) :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para.423.

신이 바다 속에서 꺾어온 산호를 그 남자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한다. 이것은 자아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아니무스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아니무스가 영혼의 안내자, 의식과 무의식의 중개자로 기능하면서¹⁸⁰⁾ C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C가 경험해야 할 장면으로 안내한다.

(2) 장엄한 장례식 및 구덩이에 버려지는 흑인들의 시체

아픈 사람들이 등장할 때, C는 슬픔을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즉 명치에서 느낀다. BMGIM에서 정서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몸은 표현되지 못했던 정서의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이후에 C는 성당의 한쪽에서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지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쪽에선 흑인아이들과 흑인어른들의 시체들이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본다. 미지의 사람의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임을 암시하며, 이런 측면이 상실된 것을 매우 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흑인들의 죽음은 하찮게 취급당한다. 흑인들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흑인은 C의 어둡고 열등한 그림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 25:40).”라는 구절에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용은 이 구절과 관련하여, 우리 내면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의 그림자, 매우 나쁘고 가난한 자이며, 이런 존재는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⁸¹⁾ 따라서 C는 이 흑인들이 바로 자신이고, 그런 열등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그녀의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흑인은 또 다른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검은색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은색은 풍요, 모성여신, 그리고 여사제의 색이다. 중국에서 검은색은 여성적 원리, 음의 색이다.¹⁸²⁾ 이런 점에서 흑인은 여성적 원리, 즉 본능적이고 대지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 있

180) Jung CG(1978) : “The Syzygy: Anima and Animus”, CW 9ii, para.33.

181) Jung CG(1989) : “The Symbolic Life”,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a.638.

182) Matthews B(1993) : 앞의 책, p23.

다.¹⁸³⁾ 그러므로 흑인들의 시체가 하찮게 취급되는 것은 본능적이고 대지적인 측면이 평가절하 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비전을 그리는 것

이후 C는 몇 년 전 선교지에서서의 경험, 즉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비전을 그려보게 하는 장면을 재 경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여기서 가난한 아이들은 심리학적으로, C에게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음을 뜻한다. 구약성서 요엘서 2:28에 보면, 환상vision에 대해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은 C가 아이들과 그들 각자의 미래의 꿈을 그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C는 꿈을 그리면서 기대감, 설렘, 행복을 느낀다. 이 경험을 인텐션(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과 연관지어본다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즉 자신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는 꿈을 회복하는 것이 그녀의 과제인 것 같다.

3) 3회 세션 : 아름다운 새의 죽음

C는 ‘감감한 양쪽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의 상태를 탐색해보기’의 인텐션과 Transitions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마지막 곡(브람스의 Piano concerto #2 Andante)에서의 죽은 새의 모습을 언급했다. 그녀는 큰 새가 해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인텐션(양쪽 길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과 연관시켰고, 그 새가 비록 날 수 없는 새였고,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었으나 그녀는 그 새가 어리석지 않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C는 예전 세션에서는 정서적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새가 죽은 것을 보며 슬픔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냈다.

(1) 늑대개와 자유롭게 나는 새

C는 왼쪽과 오른쪽의 두 갈래로 나누어진 길 위에 서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이 가고 싶은 오른쪽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그녀에게 무겁고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C는 오른쪽으로 가면 새가 있을 것 같고,

183) 심상영(2006) :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 -용의 관점에서”, 《심성연구》, 21(2) : p121.

왼쪽으로 가면 늑대개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여기서 동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심리학적으로 “동물은 분화되지 않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리비도를 의미한다.”¹⁸⁴⁾

왼쪽에는 늑대개가 있다. 늑대개는 늑대와 개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개인 것은 분명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의 야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이 늑대개가 왼쪽에 있다는 것은 S가 아직 이런 본능적 측면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새가 있다. “하늘과의 연관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새는 천국과 땅 사이의 매개자로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 특히 영혼의 구현으로 여겨져 왔다.”¹⁸⁵⁾ 용에 의하면, “새는 날개를 가진 존재로서, 항상 영(spirit)이나 사고를 상징해왔다.”¹⁸⁶⁾ 대개 새는 직관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지닌 정신의 본질을 나타낸다.¹⁸⁷⁾ 특히 C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면서 새와 자유를 관련지었다. 이처럼, 새는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날아다니므로 자유와 해방을 뜻하기도 한다.¹⁸⁸⁾ 대개 ‘나는 것’은 연금술의 상승(*sublimatio*) 과정과 관계가 있고, “상승 작업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를 제한하는 얽힘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개별적 특수성 등을 위에서 거리를 두고 보게 한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시각이 보다 웅대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만 또한 실제적인 삶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 우리가 지각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줄어든다.”¹⁸⁹⁾

C는 자유롭게 나는 새를 바라보는 늑대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C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조망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를 희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184)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268.

185) Matthews B(1993) : 앞의 책, p22.

186) Jung CG(1983) : “The Philosophical Tree”, CW 13, para.321.

187)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86.

188)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4) : 앞의 책, p412.

189)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 앞의 책, p140.

(2) 날지 못하는 큰 새의 죽음

다음 장면에서는, 날지 못하는 큰 새가 해변에서 해가 비치는 쪽으로 걸어가다 죽는다. C는 그 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C는 자신의 머리에서 슬픔을 느낀다. C가 슬픔을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느낀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그녀가 감정(가슴)보다는 지성(머리)에 가치를 부여하는 삶, 즉 에로스 지향적인 삶(eros-oriented life)이 아닌 로고스 지향적인 삶(logos-oriented life)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죽은 새에게 어리석다고 말한다. 하지만 C는 죽은 새를 안고, 이 새에게 어리석지 않고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것은 C의 내면에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열등한 측면을 수용하는, 자기수용적인 태도가 있음을 뜻할 수 있다. 날지 못하는 큰 새가 죽은 것처럼, C는 이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부자유한 자신을 극복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4) 4회 세션 :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승리

C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나의 실존 사이에 있는 괴리에서 비롯되는 무기력과 슬픔'의 인텐션과 Melancholy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신체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이번 세션에 대해,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불안감의 이슈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세 번째 곡(바흐의 Mein Jesus)에서 경험한 아버지의 죽음과 이것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즉 “내가 이겼다”고 군림하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언급했다. C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항상 어머니와 경쟁해온 느낌을 가졌었고, 어머니가 자신의 딸과 같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도 모든 것을 받아 주는 어머니가 필요했지만, 실제의 어머니는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C는 심상경험에서 어머니-아버지-자신과의 삼각관계 사이에서 오는 불안감을 무마하기 위해, 그녀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의 사이에 있어온 경쟁구도가 종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C는 이후에 슬픔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석연치 않은 해결의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C는 인텐션(다른 사람의 기대와 그녀의 실존 사이에 있는 괴리에서 비롯되는 무기력과 슬픔)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기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기대였고, '이

것, 아니면 죽음'이라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반응을 그녀가 뭔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무기력과 연관시켰다.

(1) 아버지를 죽이는 것

심상은 C,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셋이 함께 있지만 C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있거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장면이 교대로 등장할 때는 익숙한 불안을 느낀다. 이후 C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다. 여기서 아버지의 죽음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부성원형과 부성콤플렉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버지, 즉 부성원형은 집단 의식, 전통적인 정신을 나타내며,¹⁹⁰⁾ “도덕적 계율과 금지의 세계를 대표하며, ... 정신의 대표자로서 충동성을 방해한다.”¹⁹¹⁾ 그리고 부성콤플렉스는 정신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에서 ‘정신적’이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표명, 행동, 성향, 충동, 의견 등이 나오고, 긍정적인 부성콤플렉스는 남성에게는 권위에 대한 신봉과 정신적 규약과 가치에 대한 철저한 복종 태세를, 그리고 여성에게는 활발한 정신적 포부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꿈에서 결정적인 확신, 금지와 충고들이 부성상에서 나온다.¹⁹²⁾

C는 실제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와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긍정적 부성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으로 보인다. 응은 긍정적 부성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딸은 ‘아버지의 딸(fille a papa)’이며, 어머니와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보았다.¹⁹³⁾ 이렇게 볼 때, C는 아버지의 딸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심상에서 C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인다. C는 1년 후 나와 함께 꿈 분석을 시작했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꿈을 두 번 가져왔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면서 잠에서 깼다(두 번째 분석 시간에 가져온 꿈).

190) Jung CG(1993) : “Individual dream symbolism in relation to Alchemy”, CW 12, para.92.

191)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6) : 앞의 책, p161.

192)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응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앞의 책, p284.

193) Jung CG(1990) : “A Study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CW 9i, para.525.

화장실에 가보니 아버지가 욕조 가득한 물에 잠긴 채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었다. 나는 얼른 들어가 아버지를 건졌고 아버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의 다리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다(두 번째 분석 시간을 가진 후 약 3개월 후의 꿈).

C는 첫 번째 꿈에서 이유 없이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충격을 받고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두 번째 꿈에서는 아버지가 살아나긴 했어도 하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막막한 맘이 들었다고 했다. C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마음이 넓은 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무기력하다고 연상했다. 꿈에서의 C의 아버지는 C안에 있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측면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죽음은 C의 이 같은 측면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구가 되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은 그녀가 아직 아버지의 측면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BMGIM 심상경험과 두 꿈은 C가 부성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BMGIM 심상경험에서 C가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은 C가 부성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성인여성의 부성콤플렉스는 아동기의 부성원형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자아가 분화하여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¹⁹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격발전에 있어서 부성콤플렉스의 극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성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은 모성상과의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본성인 여성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¹⁹⁵⁾ 다시 말해, 부성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C에게도 남은 과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성, 모성성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상경험에서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가 다시 등장한다.

194) 이유경(2010) : 앞의 책, p71.

195) 이유경(2010) : 앞의 책, p73.

(2) 어머니의 승리와 동성애적인 꿈의 의미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 높은 곳에 서서 웃으며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C는 슬픔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C는 어머니에 대해 ‘성취 지향적 삶의 태도를 가진 분’이라고 연상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C의 어머니는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모성상과는 거리가 먼, 모성적 측면이다. 즉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 같은 어머니의 등장은 부성콤플렉스의 극복 후 남성적 가치에 편향된 모성적 측면이 활성화된 상태를 뜻한다.

C는 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 왔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모성적 태도는 C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C에게는 새로운 여성적 태도가 필요하다. C가 여성으로서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할 여성적 측면이 다행히도 C의 꿈에서 발견된다. “부성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여성임에도 남성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영웅적인 남성적 인격과 동일시하며 남자와 같이 살아온 여성들에게서 치료 과정 중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티브가 등장하곤 한다.”¹⁹⁶⁾ 이처럼 C도 동성애적인 내용의 꿈을 분석시간에 가져왔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까지 친구들이 나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와주었다. 결혼식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멀리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려 했다. 친구들은 내가 이런 가정을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옆에 여자 친구가 공공장소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려했고, 나는 웨이터로 나타난 남자친구(실제 남편)를 바라보며, 괜찮은지 허락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다가와서 팬티를 벗고 있는 나를 꽃무늬 손수건으로 덮어주었다.

C는 당시 신혼 초였고, 자신이 결혼 전보다 남편에게 더 의존적이고 그와 관계가 없어져서 불편하고 무기력을 느낀다고 했다. C는 꿈에 나온 여자 친구에 대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여성이라고 연상했다. 그런 그녀가 C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고, C도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원하지만, 결국 성관계를 갖지 못한다. 꿈에 나오는 여자 친구는 C가 살아내지 못했던 그림자 측면으로, 이제 이 측면이 C와 접촉하기를 원한다. 하

196) 박 신, 김계희(2015) : 앞의 책, p218.

지만 C는 남편으로 대변되는, 규칙을 정해주는 아니무스로 인해 그림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C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존재가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바뀌었을 뿐, C는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요구, 자신의 고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C와 같은 부성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감정상태를 흔히 잘 알지 못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¹⁹⁷⁾ 그렇기 때문에 C는 그녀의 꿈에 나온 그림자상, 즉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보다 자유로운 측면을 통합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성 밖으로 나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

C는 성 밖으로 나와 혼자 힘없이 길을 걸어간다. 그녀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앞으로 가면 행복감을 주는 유채 꽃밭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한다. 그런 반면 C는 성에 있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쓰여 자꾸 뒤돌아본다. 하지만 C는 앞으로 가는 것에 더 끌리고, 앞으로 가니 기대했던 유채 꽃밭이 등장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것으로 심상이 끝난다. 그녀가 심상경험 후 그린 만다라의 제목, <유채 꽃밭으로 가려면...?>을 고려해 본다면, C가 자신의 목적지가 유채 꽃밭이라는 것을 어렵스럽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C가 성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C가 부모콤플렉스나 부모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격발전의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C는 타인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4) 유채 꽃밭에 도달하는 것

C의 목적지는 유채 꽃밭이고, 그곳은 C에게 행복감을 주는 곳이다. 꽃은 자기다움의 결정체인 자기를 뜻하고,¹⁹⁸⁾ “가장 사랑스럽고 값진 것, 때론 전체를 개현한 상태이며, 꽃이 된다함은 자기실현을 한다는 것에 견줄 수 있다.”¹⁹⁹⁾ 심

197) 박 신, 김계희(2015) : 앞의 책, p121.

198) Jung CG(1990) :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Kore”, CW 9i, para.315.

199) 이부영(2002a)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p247.

리학적으로, 노란색은 빛과 의식성과 연관된다.²⁰⁰⁾ C가 유채꽃밭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자기와 일치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유채는 가을에 파종하고 겨울의 추위를 견딘 후, 이른 봄에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유채가 추위를 견딘 후 꽃을 피우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격발전 과정에 상응한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C는 이제 그녀 자신의 길을 혼자 가야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녀는 유채꽃밭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5) 5회 세션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십자가

C는 ‘내 것을 찾기 위한 모험을 해도 되는지’의 인텐션과 Paradox 음악프로 그램으로 시각적 · 정서적 · 신체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다섯 번째 곡(Pagan saints-Thores)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화의 감정과 이와 연관된 어머니의 이미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곡과 여섯 번째 곡(Prayer cycle-Strength)에서의 대극적인 이미지, 즉 천국과 지옥, 즐겁게 뛰어노는 사람들과 상처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했다.

C는 하나님에 대한 화의 감정을 어린 시절 부모님과과의 경험과 연관 지었다. 그 경험은 부모님이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보여 C가 하나님에게 따졌던 것과, 교회에 너무 열심히 어머니를 하나님께 빼앗긴 느낌을 가졌던 것 등이다. C는 또한 기독교의 편향적 태도(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와 지나치게 예정론적인 어머니의 태도(넌 내가 하라는 걸 하게 될 거다)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지금은 종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 신의 어두운 측면

C가 어떤 꼬마를 따라 간 곳에서 아픈 어머니와 아기를 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봉사하러 갔던 선교지에서 죽어가던 노인을 위해 기도해주던 선교사를 본다. 이 장면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고통과 죽음을 방치하는, 무력하고, 선하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무기력, 혼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아픈 어머니와 아기, 죽어가는 노인은 모두 C가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을 나타내고, 이 상황은 종교적 이슈와 관련되어 나타난 듯하다.

200) Abt T, 이유경 옮김(2008)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94.

C는 선교여행을 갈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C에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선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신을 최고선(*Summum Bonum*)으로 여기면서, 신의 선하고 밝은 측면만을 강조하고, 신의 어두운 측면을 마귀나 사탄에게 투사하면서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신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즉 그녀에게 신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지 않고, 고통과 죽음을 방지하는 무책임한 신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그녀는 신의 어두운 측면을 경험한다.

심리학적으로, 신의 어두운 측면은 심리적 사실로서, 신의 이중성이나 양면성과 관계된다. 융은 신의 이중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의식은 양가적이다. 즉 무의식은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이미지는, YHWH 혹은 두 손을 가진 로마의 클레멘스의 하나님처럼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오른쪽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왼쪽에는 사탄이 있으며, 신은 이 두 손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쿠사의 니콜라스(Nicholas of Cusa)는 신을 대극의 복합체(*complexio oppositorum*)라고 부른다.”²⁰¹⁾

또한 융은 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전체성과 관계되고, 대극을 담아내지 못하는 신은 불완전하며, 온전한 신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전체성의 상징이 되기에는 불완전하고, 기독교가 잃어버린 어두운 측면, 즉 악마, 여성적인 것 또는 잃어버린 네 번째 기능을 포함하여 사위성(Quaternity)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²⁾ C가 무기력한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낀 것은, 그녀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신의 어두운 측면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과 어머니와의 동일시

C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과 어머니를 동일시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부성상이고, 어머니는 성취지향적인 남성적 원리를 지향하는 모성상이다. 이 둘은 모두 연관성(relatedness)를 갖고 있지 않다. C는 지속적으로 무기력에 대한 이슈를 보여 왔는데, 이번 세션을 통해 그녀는 모든 것을 예정해 놓고, 그녀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어머니라고 인식했다. C는 자신의 무기력의 원인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다. 그런데 C를

201) Jung CG(1989) : “Psychology and Religion”, CW 18, para.1537.

202) Jung CG(1989) : “Psychology and Religion”, CW 11, para.107.

무기력하게 하는 하나님과 어머니는, 다름 아닌 C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고 또는 태도, 즉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나 태도이며,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때 그녀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다.

C는 이 같은 부정적 측면과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제까지 C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습적이고 집단적인 태도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살아왔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제 C는 보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폰 프란츠는 이것을 개성화의 의미로 설명한다. “개성화는 우리가 보다 개별적인 동시에 보다 더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²⁰³⁾ 옴에 의하면, 개성화란 “개별적인 존재가 형성되고 분화되는 과정이다. 특히 그것은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심리와의 구별되는 존재로서 심리적인 개인의 발전이다. 그러므로 개성화는 개인의 인격 발전을 목표로 하는 분화(*differentiation*)의 과정이다.”²⁰⁴⁾ 이렇게 볼 때, C가 보다 개인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인습적인 집단의식이나 어머니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 가난한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는 것

이후에 C는 천국과 지옥, 즐겁게 뛰어노는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상을 경험한다. 이것은 서로 대립되고 분열된 C의 내면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태에서 C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다음 심상에서 나타난 C의 태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여기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픔을 나눈다. 그때 그녀는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고, 아픈 아기와 어머니가 회복되고,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낀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C의 내적인격들로, 그녀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수용할 때, 비로소 정서적 충족감을 누릴 수 있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면에서, 치유는 여성적 원리와 관계된다. 여성적 원리는 남성적 원리의 지배권 아래서 경시되고 도외시되고 그리고 평가절하되었던 것—침묵, 내향적 감정, 수용성, 본능성(*instinctuality*), 세사적인 기쁨, 구체적인 현실이며,²⁰⁵⁾ 마음, 개인적인 것, 감정, 몸, 생명, 연관성, 본성, 물질, 특이성, 평범

203)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168.

204) Jung CG(1990) : “Definitions”, CW 6, para.757.

205) Jaffe L, 심상영 옮김(2006) : 《마음을 해방하기: 옴 심리학과 영성》,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209.

힘²⁰⁶⁾ 등을 뜻한다.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남성적 원리가 지배적인, 현대 기독교에 보충되어야 할 여성적 원리다. 기독교인인 C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실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C는 심상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측면들이고, 이들과 아픔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6회 세션 : 마음가는대로

C는 '빅찬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의 인텐션과 Relationships과 Abandonment to Bonding이 결합된 음악프로그램으로 시각적·정서적 이미지를 경험했다. C는 주요 이미지로 다섯 번째 곡(슈만의 Dreaming)에서 경험한 나비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비를 하늘로 보내고 나서 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한다. 그녀는 나비가 한 마리일 때는 남자친구와, 여러 마리일 때는 남자친구와 가족과 연관시키면서 나비를 자신이 타인에게 매여 있는 것과 연관시켰다.

당시 C는 가족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C는 심상경험에서 혼자 있을 때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었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을 한 뒤 기분이 좋아졌고, 항상 자신 곁에 있는 나비들을 서로 더 이상 집착하거나 서로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일 수 있는 태도와 연관시켰다.

또한 C는 숲에서 동물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으며, 산 정상에 올라가 산을 정복한 느낌으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C는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도시가 색깔도 없고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곳이며,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무미건조한 시간과 연관시켰고, 그런 과정도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통찰하였다.

C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초기 세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급함이 해결되고, 이제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삶의 속도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5회 세션에서 종교적인 이슈(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십자가)를 다룬 후에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206) Jaffe L, 심상영 옮김(2006) : 앞의 책, p205.

있지만, 이것 또한 자신이 겪어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1) 혼자가 되는 것

첫 장면에서 C는 길에 앉아서 유채꽃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나비로 변하고, 꽃 위에 앉거나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움과 벽찬 감정을 느낀다. C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함으로써 무력감과 부자유함을 느껴왔다. 이런 그녀의 상황에서 활력과 자유를 나타내는 나비가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 C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나비의 인도를 받아 어딘가를 향해 간다. 여기서 다시 길의 주제가 등장한다. 그녀는 한편으로 나비가 곁에 있어서 편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비가 갑자기 없어져서 방향을 상실하거나 혼자 될까봐 불안해한다. 이후에 C는 혼자인 느낌, 약간 어둡거나 허무한 느낌을 가지지만, 곧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이 든다. 그녀는 붓을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각양각색의 예쁜 색깔을 그리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제 C의 주위에 나비가 더 많아지고, 나비들은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 C는 나비가 자신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수많은 나비들을 하늘로 날아가게 놔둔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집단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인격발전의 길, 곧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가 되어야 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957년 5월 30일에 구스타브 슈말츠에게 쓴 편지에서, 용은 고독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가치 있는 치유의 샘이고, 말은 자신에게 자주 고통을 줘서 말의 무익함에서 회복되기 위해 많은 날 동안 침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독(solitude)과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⁰⁷⁾ 용 분석가인 앤서니 스톤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을 예로 들고, ‘창조적 고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혼자 있는 능력은 귀중한 자원이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느낌과 접촉하고, 상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태도를 바꾼다.”²⁰⁸⁾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207) Jung CG(1976) : *Letters vol. 2 : 1951-196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363.

208) Storr A, 이순영 옮김(2011) : 《고독의 위로》, 책 읽는 수요일, 서울, p95.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성과 접촉할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비들이 C의 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다. 이것은 C가 타인의 기대나 요구를 우선시하던 삶의 패턴과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다 개인적이 되고,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의 패턴과 독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C에게 혼자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불구불한 길과 동물들과의 만남

C는 양옆에 유채 꽃밭이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걸어간다. 여기서 C가 똑바로 나 있는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인격발전의 순환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융은 이것에 대해 “정신적 발전의 목표는 자기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직선적 변화가 없다. 단지 자기의 순환이 있을 뿐이다. 단일형의 발전도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처음 단계에서나 볼 수 있다. 그 뒤에는 모든 발전이 중심을 향한다.”²⁰⁹⁾고 말한다.

이후 C는 햇빛이 비추는 숲속에서 원숭이, 토끼, 다람쥐들을 만난다. C는 원숭이의 손을 잡고 있고, 다람쥐와 다른 동물들이 뛰노는 것을 보면서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갖는다. 원숭이, 토끼, 다람쥐는 야생 동물들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비교적 온순한 동물들이다. 여기서 이런 동물들과 친한 것은 C에게 본능적 측면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산 정상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것

C는 산 정상에 올라가 산 아래에 있는 도시를 보면서 도시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다. “산은 또한 오랜 탐구의 목표, 영원으로 향하는 길과 통과지점을 의미하며, 또한 자주 자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은 주인공이 힘겨운 노력(등반) 끝에 발견하는 어떤 장소—인생의 어떤 한 순

209) Jung CG, Jaffé A, 이부영 옮김(2012) : 앞의 책, p249.

간- 그곳에서 성격의 견고함과 자기인식을 얻으면서 인격을 갈고 닦을 장소—를 가리킨다. 그것들은 노력을 통해서 의식화되고 자신을 단련케 하는 여러 가지들이다.”²¹⁰⁾ 다시 말해 산 정상에 있다는 것은 C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견고함이나 자기인식이 생긴 상태를 뜻한다. 산 아래에 있는 도시는 바로 C가 처한 현실로, 이곳은 그녀의 표현으로, 색깔도 없고,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도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웅 신화에는 현실로 돌아가는 주제가 나온다. “영웅의 임무가 수행되었다고 했더라도 모험 당사자인 영웅은 아직 생을 역전시키는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 이 은혜가 사회, 국가, 그 천체, 아니면 일반 세계를 재생시키는데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²¹¹⁾ 산 정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내려가는 주제는 신약성서에도 나온다. 예수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 예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신비스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하지만, 그들은 산 위에 머물지 않고 마을로 내려온다(마 17:1-8). 예수가 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한 일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이었다(마 17: 18). 또한 선불교의 십우도에도 비슷한 주제가 나온다. 그 중에서 제9도(返本還源: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다)와 제10도(入塵垂手: 복을 베푸는 손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다)가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제9도와 제10도는 “근본자리로 돌아와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된 삼매三昧의 경지에서 다시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갓거리로 돌아와, 작위 함이 없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상이 여기에 있다.”²¹²⁾

이런 점에서, C가 색깔도 없고,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척박하고 무미건조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C가 도시로 내려갈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녀가 이 같은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C의 과제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는

210)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앞의 책, pp154-155.

211) Campbell J, 이윤기 옮김(2005)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서울, p253.

212) 이부영(2002b) : 앞의 책, p296.

개성화될 수 없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는 개성화될 수 없다… 어떤 일이나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맞설 때에만 개성화될 수 있다.”²¹³⁾

C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삶과 타인(특히,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갈등에서 비롯된 무력감과 부자유함을 주된 이슈로 갖고 있었다. 그런데 총 6회의 세션을 통해, C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어머니의 태도와,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기독교적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그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통찰과 힘을 얻었다.

C의 인격발전의 과제는 동물들로 나타난 본능과의 동화, 날지 못하는 큰 새와 같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고 부자유한 자신을 극복하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한 부성콤플렉스의 극복, 신의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인습적이고 일방적인 모성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기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나는 한국의 내담자들이나 치료사들이 심상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인과적-환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했고, 두 여성의 BMGIM 심상경험의 상징적 의미를 융 학파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자발적인 심상의 출현과 그 전개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BMGIM도 꿈이나 적극적 명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의 자발적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다. 둘째로, BMGIM에서도 죽음과 재생의 주제나 문제의 발단-갈등-해결을 통한 인격의 발전, 치유와 전체성을 지향하는 객체정신의 자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 학파의 관점이 심상의 의미를 보다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BMGIM도 꿈 분석이나 적극적 명상처럼 무의식을 다루는 유용한 치료적 도구로 볼 수 있다.

내담자들이나 치료사들이 심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

213) Jung CG(1988) : *Nietzsche's Zarathustra :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34-1939. vol. 2*, ed. By Jarrett J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102.

학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심상은 콤플렉스가 형상화된 무의식의 내용이며, 각 개인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 단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심상을 알고 있는 것, 즉 기호가 아닌, '알 수 없는 것, 의미를 잉태하고 있는 것,²¹⁴⁾ 즉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상을 주의 깊게 살피는, 종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들을 가질 때 우리는 문제와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목적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들은 가끔 자신들의 꿈을 BMGIM 세션에 가져온다. 그리고 BMGIM과 꿈 작업은 무의식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가진다.²¹⁵⁾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BMGIM 치료사들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BMGIM 치료사들은 BMGIM 심상뿐 아니라 꿈을 이해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 분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BMGIM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심상이나 꿈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 내담자의 꿈을 조금 다루어 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BMGIM이 끝난 후의 꿈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BMGIM의 심상경험과 꿈을 동시에 다루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의식은 매우 깊고 풍요로운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이다. 물론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매혹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의식화해 나간다면, 즉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창조적인 힘과 접촉하고 경험해 나간다면, 우리의 일상적 삶이 보다 더 풍부해지고 치유와 갱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 신, 김계희(2015) : 《부성콤플렉스-분석심리학적 이해》, 학지사, 서울.
 심상영(2006) : “한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에 관한 심리

214) Jung CG(1990) : “Definitions”, CW 6, para.817.

215) Ilcheva YM(2011-2012) : “Dreamwork in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 GIM as a Dreamwork Vessel”, *J.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 13 : p68.

- 학적 해석-용의 관점에서”, 《심성연구》, 21(2).
- 이부영(2002a):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 _____ (2002b):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이유경(2010):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정 콤플렉스”, 《심성연구》, 25(1).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4):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 _____ (2000):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 동아 출판사, 서울.
- Abt T, 이유경 옮김(2008):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Boa F, 박현순, 이창인 옮김(2004): 《용 학파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 Campbell J, 이윤기 옮김(2005):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서울.
- Cooper JC, 이윤기 옮김(2003):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Cotterell A, 도서출판 까치 편집부 옮김(2002):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 까치, 서울.
- Edinger EF, 김진숙 옮김(2015):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돈화문출판사, 서울.
- Edinger EF, 장미경 옮김(2016): 《자아발달과 원형》, 학지사, 서울.
- Grün A, 전현호 옮김(2003): 《참 소중한 나》, 성바오로, 서울.
- Grün A, 한연희 옮김(2003): 《자기 자신 잘 대하기》, 성서와 함께, 서울.
- Grün A, 전현호 옮김(2005): 《아래로부터의 영성》, 분도출판사, 칠곡.
- Jaffe L, 심상영 옮김(2006): 《마음을 해방하기 : 용 심리학과 영성》,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_____ (2010): 《용 심리학과 영성》,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용 기본 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2): 용 기본 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용 기본 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5): 용 기본 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6): 용 기본 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 Jung CG, Jaffé A, 이부영 옮김(2012):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파주.
- Oeri SB, 이유경 옮김(2012):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Storr A, 이순영 옮김(2011): 《고독의 위로》, 책 읽는 수요일, 서울.
- von Franz ML,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용연구원, 서울.
- Welch J, 심상영 옮김(2000): 《영혼의 순례자들》, 한국기독교연구원, 서울.
- Bruscia KE, Grocke DE, edited(2002): *Guided Imagery and Music : The Bonny Method and Beyond*, Barcelona Publishers, Gilsun.
- Bush CA(1995): *Healing Imagery & Music : Pathways to the Inner Self*, Rudra Press, Portland.
- Bush CA, et al(1999): *The Fundamentals of the Bonny Method*, Unpublished Manu-

script.

Chevalier J, Gheerbrant A(1996) : *The Penguin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Clark MF(1995) :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Hero’s Myth in GIM Therapy”,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4.

Edinger EF(2000) : *Anatomy of the Psyche: Dictionary of Jungian Psychology*, Compiled By Ladd T.

Goldberg FS(1992) : “Images of Emotion: The Role of Emotion in Guided Imagery and Music”, *J.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 1.

Grof S(1985) : *Beyond the Brain ; Birth, Death and Transcendence in Psychotherapy*, State University Press, Albany.

Hannah B(2006) : *The Archetypal Symbolism of Animals*,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Ilcheva YM(2011-2012) : “Dreamwork in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GIM as a Dreamwork Vessel”, *J. of the Association of Music and Imagery*, 13.

Jobs G(1961) :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I, The Scarecrow Press, Inc, New York.

Jung CG(1970) : CW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76) : *Letters vol. 2 : 1951-196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78) :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1)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3) : CW 13, *Alchemical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5) : CW 16,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8) : *Nietzsche’s Zarathustra : Notes of the Seminar Given in 1934-1939. vol. 2*, ed. By Jarrett J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9)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89) :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90) :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90) : CW 9i,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91) : CW 17,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_____ (1993)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eton.
- _____ (1997) : *Vision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97) : *Visions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2008) : *Children's Drea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Jung CG, McGuire W, Hull RFC, edited(1977) : *C. G. Jung Speaking : Interviews and Encoun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Matthews B(1993) : *The Herder Symbol Dictionary*, Chiron Publications, Wilmette.
- Sharp D(1991) : *Jung Lexicon : A Primer of Terms & Concepts*, Inner City Books, Toronto.
- Short AE(1996-1997) : “Jungian Archetypes in GIM Therapy : Approaching the Client’s Fairytale”,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5.
- Tasney K(1993) : “Beginning the Healing of Incest through Guided Imagery and Music : A Jungian Perspective”,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2.
- von Franz ML(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Publications, Boston.
- _____ (1993) : *The Feminine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9) : *Muhammad Ibn Umail’s Hall Ar-Rumuz : Historical Introduction and Psychological Comment*, Fotorotar AG, Switzerland.
- Wesley SB(1998-1999) : “Music, Jung, and Making Meaning”, *J. of the Association for Music and Imagery*, 6.

Shim-Sŏng Yŏn-Gu 2020, 35 : 1

〈ABSTRACT〉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Imagery Experiences
in the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BMGIM)
Focused on the Cases of Two Women from
a Jungian Perspective ***

An-Gie Kim, M.A. **

BMGIM is a method of individual psychotherapy which seeks to achieve self-knowledge via imagery experiences evoked by music. When dealing with imagery in BMGIM, emphasis is placed on the insight of the client, but there are occasions when clients sometimes are confused because they cannot understand their imagery experiences. Also therapists and clients tend to consider experiences of BMGIM from a causalistic-reductive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MGIM imagery experiences, in this thesis imagery experiences are interpreted from a Jungian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imagery as a symbol and stresses the purposive meaning. At first the definition and procedures of BMGIM are dealt with, secondly music and imagery as components of BMGIM are examined, and lastly the symbolic meaning of two female clients' BMGIM imageries are discussed.

Looking into deeply imagery experiences, both therapist and clients newly came to realize not only the symbolic meaning of imageries but also the purposive meaning of wounds and sufferings of clients, especially I was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just like dreams or active imagination, BMGIM also deals with spontaneous contents of the psyche. Second, the autonomy of the objective psyche which orients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healing and wholeness is also revealed in BMGIM. Lastly, Jungian perspective aid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imagery experiences in a more deep and abundant way. From this point, BMGIM can also be seen as a

useful therapeutic tool which deals with the unconscious such as dream analysis or active imagination.

KEY WORDS : BMGIM · Jungian perspective · Symbolic meaning ·
Dream analysis · Active imagination.

**Diploma thesis (2017) submitted to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Depth Psychology According to C.G. Jung and Marie-Louise von Franz in Switzerland.*

***C.G. Jung Center for Depth Psychology in Korea, Seoul, Korea*